

# 공작

감독 윤종빈

제작 영화사 월광, 사나이 픽처스

## 1. 타이틀 시퀀스

암전 상태에서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애가 출연한 '삼성 Anycall' 광고가 흑백 이미지로 펼쳐진다. 그 위로 떠오르는 자막.

이 영화는 1998년 3월 18일에 공개된 안기부 '이대성 파일' 중  
대북 공작원 흑금성 파트를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 2. 김포공항 청사 앞. 낮

철경- 하는 소리와 함께 12인승 승합차 문이 열리면 가수 이효리가 매니저의 경호를 받으며 차량에서 하차한다. '출국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등 미리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 연신 팡- 팡- 플래시를 터트리며 질문을 쏟아내는데... 아무 대답 없이 10여명의 국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재빠르게 공항게이트로 진입하는 이효리.

## 3. 비행기 기내. 낮

우우웅- 공기 진동음이 울리는 비즈니스 석, 메이크업 팀이 이효리의 얼굴을 화장시키고 있다.

기내 방송

이제 곧, 상하이 푸둥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오니 모든 승객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을 체크하는 스튜어디스, 눈가리개를 한 채 의자를 잔뜩 젖혀 누운 남자를 발견한다.

스튜어디스

손님... (반응 없자) 손님~!

눈가리개를 벗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 박채서.

스튜어디스

곧 착륙합니다. 창문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채서, 꼭 닫아두었던 창문을 열면 빛 때문에 순간 눈이 부시다.  
눈이 익숙해지면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이는 도시.

자막 ‘2005년 4월, 중국 상하이’

창문 밖을 응시하는 채서를 옆 좌석에 있던 비슷한 또래의 김기자가 쳐다본다.

김기자

어때요?? 기분이?? 소원 이뤘는데...

채서

(속 쳐다보며) 뭐가요??

김기자

(이효리를 가리키며) 화면보단 좀 작다... 그쵸?? 아 내리  
기 전에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채서

에이 쑥스럽게 무슨 인사를 해요... (잠시 정적) 이쁘다...

김기자

(감회에 젖은 듯 한 숨 쉬며)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린 건가요?

김기자의 말에 담담하게 웃던 채서, 다시 창 밖 중국을 내려다본다.

#### 4. 강남 부동산. 낮 - 과거 -

40대 초반의 채서가 부동산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있는데 그 옆에서 두 여자 -  
부동산 여사장과 집 주인 여자 - 가 초조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다.

여사장

그때 보셨던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복비 0.3 프로는 저  
희한테 주시는 건데... 집주인분이 복비는 본인이 부담하신  
다고...

마지막 문장까지 확인한 채서, 호쾌하게 도장 뚜껑을 연다.

꼭- 채서가 도장을 찍자 얼른 계약서를 챙기는 여사장.

여사장

잔금은? 어떻게... 계좌이체로 하실 거죠?

채서

아니요, 뽑아왔습니다...

테이블에 쇼핑백 봉투를 올리는 채서, 여사장이 열어보면 만원 다발 수십 개.

여사장

(놀라며) 아이고... 수표도 아니고 굳이 왜 또 이걸 현금으로...

집주인이 액수를 확인하는 동안 채서에게 아파트 열쇠와 서류를 건네는 여사장.

여사장

진짜 잘 한 거예요, 강남불패라고 그러잖아... 강남은 절대 실패 안 해... 금세 아파트 값 급절로 뛴 거야...

채서

(심드렁하다) 무슨 그런 거 생각하고 집 샅니까... 애 교육 때문에 그러지...

여사장

그래도 뛰면 좋지... 안 그래요?

아무 대답 없이 아저씨처럼 씩 웃어 보이는 채서.

여사장

그래, 애가 이번에 중학교 간다고 했나?

채서

아니요, 내년에 국민학교 들어가요...

여사장

(살짝 당황했다가) 그래, 요샌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야해~

채서

(악수 건네며)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이) 많이 파세요...



채서가 인사를 하고 부동산을 나가자 안도하는 집주인과 여사장.

집주인

막판에 계약 틀까봐 조마조마했네...

여사장

제가 걱정 말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집주인

아무리 사람이 어수룩해도... 시세보다 5천을 더 준다는데  
안 불안하겠어? 괜히 찻찻하네...

## 5. 채서의 아파트 앞. 낮

복도식 아파트들이 한강변을 따라 줄줄이 서 있다.

자막 '1995년 10월, 서울'

이사 집 인부들이 용달차량에서 가구를 내리고 있다. 양손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단지 내 분리수거함으로 이동하는 채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40대 남자 - 이하 창주 - 를 힐끔 쳐다본다.

채서

(턱살을 떨며) 아이고 요즘엔 남자들이 참 할 일이 많죠...

뭔가 싶어 채서를 쳐다보는 창주.

채서

여기 아파트 참 좋네요... 뷰도 죽이고...

아무 대꾸 없이 숙 채서를 한 번 훑어보고는 자리를 뜨는 창주.  
채서는 그런 창주를 의미심장한 얼굴로 쳐다본다.

## 6. 채서의 아파트 앞. 낮

이삿짐이 들어오지 않아 텅한 30평대에 평범한 아파트, 검은색 스포츠 백을 맨 채

서가 거실을 서성이다 화장실로 들어간다. 지잉- 핸드폰 진동소리가 울리자 머리와 어깨 사이에 낀 핸드폰을 끼운 채 스포츠 백을 여는 채서.

채서

이제 출발해? 집구석에 짐도 얼마 없는데 뭘 꾸물거려...  
(사이) 밥 먹었어?? 나빠고?? 치사하네, 치사해... 알았어,  
빨리 와... 아 올 때 쓰레기봉투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채서가 스포츠 백에서 가죽 다이어리, 현금 다발, 베레타 M9 권총, 총알 등을 꺼낸다. 능숙하게 탄창에 총알을 장전 하고는 비닐 백에 베레타를 집어넣는 채서, 화장실 천장 환풍구에 비닐 백을 깊숙이 쑤셔 넣는다.

## 7. 채서의 아파트 복도. 저녁

명동- 하는 소리와 함께 1302호 문이 열리자 고개를 내미는 아줌마 - 이하 창주 처 -, 문 앞에 웃고 선 채서와 그의 손에 든 떡 그릇을 번갈아 바라본다.

채서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옆집에 이사 와가지  
구요...

창주 처

아- 네 안녕하세요...

채서

떡 좀 드시라고요...

창주 처

아유 감사해라, 잘 먹을게요...

숙- 채서가 집안을 둘러보는데 그의 시야에 창주의 모습이 보인다. ‘누군데??’ 하면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오는 창주.

창주 처

저희 남편이에요... 여보 오늘 이사 오신 분이래...

채서

(반갑다는 표정) 아! 아까 낮에... 옆집 사시는 분이셨구나... 마침 잘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창주

(약간 빨쭈) 아, 예...

먼저 손 내미는 채서, 맞잡고 악수하는 창주.

## 8. 아파트 앞. 아침

창주 처를 비롯한 아줌마 몇 명, 어린 딸들을 유치원 봉고에 태우고 있다.  
입구에서 나오는 채서 처와 7살 딸 민정.

창주 처

어머- 그 집도 반포유치원이세요?

채서 처

네, 애 아빠가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하도 닭달을 해서. (딸  
한테) 민정아 친구한테 인사해야지...

민정

안녕~

창주 딸, 부끄러운 듯 엄마 뒤로 숨는다. 서로 보며 웃는 두 엄마.  
그 광경을 복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채서.

## 9. 채서의 집. 밤

- 작은 방. 밤

민정의 머리를 빗어 주는 창주 딸.

- 주방. 밤

음식 준비하는 채서 처와 창주 처.

- 거실. 밤

작은 상을 두고 마주 앉은 채서와 창주, 술 잔 들이키는 창주.

창주

박사장님도 같이 한 잔 하시면 좋을 텐데...

채서

(상상하는 듯) 아 좋죠... (사이) 근데... 그게 사실은... 이 건 비밀인데... (목소리 작아진다) 제가 간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집안내력이거든요...

하며 옆에 있던 쇼펍백에서 새로 술을 꺼내는 채서, 놀라는 창주.

창주

그거... 귀주 마오타이 아니에요??

채서

아 아시는구나... 한사장님 술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창주, 씩씩한 얼굴. 그러자 채서, 그 사람 좋은 표정으로 예의바르게

채서

이 술, 독해서 좀 그런가? 뭐 다른 거 드릴까요?

창주

그게 아니라... 귀주마오타이, 예전에 중국에서 엄청 먹었거든요...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먹었다고 해야겠네. 먹이 느라 돈 엄청 깨졌죠.

채서

중국에서요?

창주

예전에 광고회사 다녔다고 했잖아요? 거기 나와서 독립 해 보겠다고 중국 엄청 들어갔거든요. 인맥 뚫겠다고 중국 공안에 조선족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입들이 얼마나 고급인지 마오타이주는 먹어야 말이나 붙이지...

창주, 술잔 내려 보다 단번에 비워버린다. 곧 바로 술 채워주는 채서

채서

아니 뭘 뚫을라고 그 고생을 하셨어요?

얼큰하게 취한 창주,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며.

창주

광고 한 편 찍어보려고 그랬죠... (아주 낮게) 북한에서...

채서

... 북한에서요?

창주

이게 컨셉이 뭐냐면... 한국배우가 금강산이나 뭐 그런데서  
제품 딱 들고... 죽이지 않아요?? 이게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채서

글쎄요... 저는 그쪽은 잘 몰라서...

창주

원래 광고라는 게 이슈거든요... 이슈... 이거 만약 되잖아  
요 9시 뉴스에서 때리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마침 채서 처가 과일을 가져온다.

채서

여보, 나 무슨 일 하는지 말씀 안 드렸구나?

채서 처

뭘 시시콜콜 이야기해요. 우리 여자들이야 만나면 애들 애  
기박에 더 해...

창주

... 무역일 하신다고 안 하셨나?

채서

무역일 하긴 하는데... 아 내가 한사장님을 몇 년 전에 만났  
어야 했네... (술 병 들며) 이거 북한 사람한테 받은 거에  
요...

창주

... 혹시 무역이란 게... 북한 쪽이에요?

채서

벌써 한 2년 됐죠...

창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뚫으신 거예요?!

답 없이 씩 웃는 채서, 그러다 술병을 들어 기울이면 공손하게 술 받는 창주.

창주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채서

(고심하다가) 사실, 제가... 3사 출신이거든요... 2년 전에 정보사에 있다가 예편하고... 그 때 인맥으로 북한 쪽에 선이 좀 닿아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하며 채서가 술병을 상 위에 탁- 놓는데 과일을 깎다 채서 처가 한마디 거든다.

채서 처

우리 그이요 군에 있을 땐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예편하고 사업하면서 성격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암튼 되게 밝아졌어요... 불임성도 많이 생기고...

창주

(고개를 끄덕) 아... 군인이셨구나... 몰랐네...

## 10. 정보사령부. 오후 - 과거 -

- 사격장. 낮

탕탕탕탕- 울리는 총소리, 소령 시절의 채서를 비롯한 장교들이 베레타 권총으로 사격연습을 하고 있다. 표지판이 만발임을 확인하고는 씩 웃는 채서, 옆 사료에 서 있는 동료 장교들을 향해 손을 내민다.

채서

자... 두당 십만원씩 되겠습니다...

한 숨을 쉬며 지갑에서 십만원씩 꺼내는 동료 장교들.

## 11. 정보사 내 연병장. 낮

사병들이 상의를 탈의 한 채 알통구보를 하고 있다.

한쪽 벤치에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채서와 후임장교 셋.

채서

(담배연기를 깊게 내뿜으며) 어떻게 더 안 되겠냐??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후임장교1

저기... 저희가 빌려 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자꾸 공작관님이랑 이런 문제로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전에 빌려드린 오백은 안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깐...

채서

(말을 자르며) 무슨 소리야... 당연히 줘야지...

후임장교2

아닙니다... 뭐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희한테까지 손 내미셨겠습니까... 저희 말고도 여기저기 많이 빌리셨다던데 그냥... 저희 공작단 후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더 이상은 힘듭니다...

채서

(표정 굳어지며) 야... 니네 진짜 꼴랑 오백가지고 이럴래?? 나도 상황이 있으니깐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후임장교1

(한 숨 쉰다) 공작관님... 그럼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럼 빌려드리겠습니다... 다짜고짜 달라고만 그러시면 저희도 어떻게 합니까??

채서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해줘~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눈빛을 교환하며 한숨을 깊이 쉬는 후임장교들.

## 12. 채서의 일탈 몽타주

- 사병식당. 낮

사병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채서가 김치를 안주로 소주를 마시고 있다.  
일과시간에 음주하는 채서의 모습에 힐끔힐끔 고개를 돌리는 사병들.

- 정보사 영내 막사 앞. 낮

술에 취한 채서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데 사병들이 충성- 거수경례를 한다.  
'충성은 무슨' 대충 인사를 받고 길바닥에 침을 뱉는 채서, 누가 봐도 망나니다.

- 공중전화 박스. 낮

술에 취한 채서가 혀가 꼬인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채서

김 상사... 미안해... 미안한데... 나 진짜 우리... 옛정 생각  
해서... 한 번 만 도와주라... (비릿하게 웃으며) 왜 내가 옛  
날에 납품 업체 선정할 때 김 상사 뽀찌 받은 거 한 번 눈  
감아 줬잖아... 애들은 잘 크지??

- 정보사 영내 막사. 밤

침상위에 올라가 군화를 벗더니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는 채서.

채서

야... 이불 좀 깔아봐...

잔뜩 술에 취해 있는 채서의 모습에 긴장해있는 사병들, 급히 이불을 까는데...  
후임장교1이 들어와 채서를 일으켜 세운다.

후임장교1

어휴 정말 공작관님 애들 앞에서 왜 이러십니까... 제 방으  
로 가시죠...

채서



와... 임마 나 여기서 잘 거야... 군바리가 씨발 아무데서나  
쳐 자면 돼지... 뭘 따져... 야 티비 한 번 틀어봐...

애써 채서를 일으켜 세우려는 후임장교1.

후임장교1

공작관님... 진짜 쪽팔리게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마십시오...

채서

뭐 쪽팔려??!! (후임장교1의 머리를 후려치며) 야이 새끼  
야... 나는 임마 오백만원도 못 구하는 니가 더 쪽팔린다 새  
끼야... 병신... 장교라는 놈이 오백도 못 구해가지고...

순간, 인상이 굳어지는 후임장교1.

채서

아이고 이놈의 군대... 월급은 쥐꼬리만해가지고... 대위라  
는 놈은 오백도 못 구하고... 소령이라는 새끼는 술 쳐마시  
고 후임한테 헛소리나 뽀뽀해대고...

하며 그대로 골아떨어지는 채서.

(CUT TO)

잠을 자고 있는 채서의 얼굴 위로 햇살이 쏟아진다. 그때, 충성- 하는 소리와 함께  
장병들이 신속하게 기립하는데... 보면 공작단장 - 계급 대령 - 이 내무실로 들어  
와 잠을 자고 있는 채서를 쳐다보고 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는 황급히 자리  
에서 일어나 경례하는 채서.

### 13. 정보사 공작단장실. 밤

소파에 앉은 공작단장,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다.  
고개를 떨군 채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채서.

단장

박소령, 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도박이야? 여자야?

채서

(놀라며) ... 네? 뭐 말씀이십니까??

단장

지난 1년. 아니 1년 더 됐지...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고... 술 마시고 지각하고... 얼마 전엔 후임들한테 군인공제회에 서 대출까지 받으라고 했다면... 남자가 그럴 땐 두 가지 아니야... 도박 아니면 여자...

채서

...

단장

나한테 털어봐도 돼...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자 있어??

채서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단장

그러니깐 뭐가 그리 필요하냐고? 필요하다해도... 중령 진급 코앞인데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사이) 자네 여기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눈빛이 완전 달라... 자네 같은 엘리트 장교가 어찌다 이렇게 됐어??

채서

시정하겠습니다...

단장

박소령... 계속 이러면 진급 누락될 수밖에 없어... 장교가 중령 일차 진급에서 누락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별 안달거야??

채서

(비릿하게 웃으며) 제가... 달 수나 있습니까??

단장

(정색하며) 뭐?!

채서

제가 단장님처럼 육사 출신도 아니고... 말 잘 듣고 충성해서 중령 달면... 그 다음엔 별 달아 줘니까? 어차피 육사 출신 제 후임들이 다 제치고 올라갈 텐데...

단장

... 이 사람 이거... 이렇게 안 봤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만...

채서

결국엔 육사끼리 다 해 쳐 먹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잘릴 거, 예편 후에 사업이나 하려고 돈 좀 빌렸습니다...

단장

(고개를 절레절레) 막장이구만... 막장이야... (사이) 나도 더 이상은 자네 편을 들 수가 없겠네... 나가봐...

자리에서 일어나 단장에게 경례하는 채서.

단장

(수화기를 들며) 감찰단 연결해...

눈 피하는 단장. 채서, 경멸에 찬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온다.

#### 14. 정보사 지휘부 앞. 아침

쭉 도열한 후임 장교, 부사관들. 한 명 한 명 악수하는 예비군복의 채서.

채서

사회에서 터 뒹고 있을테니깐 나처럼 쫓겨나면 연락해...

채서의 농담에 씩씩하게 웃는 부하들. 대위 한 명, 앞으로 나와 봉투를 내밀며

후임장교1

조금씩 모아서, 전별금을 마련했습니다...

채서

야야, 됐어. 나 이제 이런 푼 돈 필요 없어... 돈 많이 벌 거야... 전화해... 맛있는 거 사줄테니깐...

봉투를 탁탁 쳐보고 흔들어 소리를 듣고는 생긱 웃는 채서.

채서

(눈물 글썽이며) 전우애가 느껴진다... 고맙다...

15. 정보사 앞. 아침

채서가 차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오는데 룸미러로 배웅 나온 후임들의 모습이 보인다. 슬픈 얼굴로 눈을 떼지 못하는 채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듯 한 얼굴이다.

16. 갈비집. 밤

고기 굽는 연기와 사람들로 그득한 갈비 가게.  
고기를 구워 딸에게 먹이는 채서 처, 고기를 구우며 잡지를 읽는 채서.  
‘장쩌민 이후, 중국의 대변혁’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  
그 모습을 보다 한숨 쉬는 채서 처.

채서 처

그만 보고 민정이 좀 먹여요...

채서

갈비 한 점 먹이면 끝이야? 이걸 공부해야, 민정이 앞으로  
쫓 먹일 수 있다니깐!

채서 처

그러게 멀쩡히 잘 다니던 군대는 왜 그만워서 이 고생을  
해요... 지금 중국 사업 준비한다고 몇 달 켜야...

손님 1 (V.O)

저런 저 미친 빨갱이 새끼들...!!

소리에 뭔가 하고 보면, 술 취한 아저씨들이 뉴스를 보며 욕을 해댄다.  
티브이 속, 미사일 발사대, 미사일 탄도 등의 화면.

뉴스 앵커 (E)

북한이 동해에서 실험한 미사일은 최대 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노동 1호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지난 3월 핵확산금지조  
약 NPT를 탈퇴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과 불안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 1호의 사정거리 또한...

화면 속 한반도 지도, 노동 1호가 닿을 수 있는 도시 위로 붉은 선이 그어진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웅성대는 손님들, 다들 불안한 얼굴로 북한 육을 한 마디씩.  
그런 사람들을 보던 채서, 다른 손님들처럼 혀를 찌찌 차며 민정에게 고기를 먹이  
는데.

민정

(고기 씹으며) 아빠, 빨갱이가 뭐야??

그때, 뽀뽀- 수신음을 내는 채서의 휴대용 호출기.

## 17. 갈비집 앞. 밤

공중전화 앞 채서, 뽀뽀 액정을 확인하면 덩그러니 찍힌 숫자 하나 '0'  
슬쩍 주위를 살피다 버튼을 누른다. 상대방이 받았는지 쟁그랑- 떨어지는 동전.

채서

(절도 있는 목소리) 네. 장군님.

## 18. 현충원 / 장병 묘역. 아침

낮은 묘비들이 쪽 깔린 묘역, 이른 아침 인기척도 없는 가운데 홀로 서서 눈을 감  
고 묵념하는 50대 중반의 한 남자, 갈색 코트에 증절모를 눌러 쓴 권부장이다. 그  
런 권부장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양복차림의 채서, 조용히 권부장의 묵념이 끝나길  
기다린다. 잠시 후 권부장이 눈을 뜨자 자세를 고치며 긴장하는 채서, 이제껏 보지  
못한 진지한 얼굴.

권부장

힘들었나?

채서

(각 잡혀서) 아닙니다.

권부장

그럼 아쉬운가? 정보 장교의 길을 걷다가... 스스로 군복을

벗은 것이.

채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 다만... 장군님께서.

권부장

부장이라 부르고, 편히 말하게.

채서

부장님께서 안기부장으로 취임 하시자마자 내려주신 명령이라 믿고 따랐습니다... 다만,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사이) 이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권부장

(끄덕이며) 1년 반이란 긴 시간 동안, 그 의문을 누른 채 나를 믿고 명령을 따라준 것, 진심으로 감복하고 있네... (피식 웃으며) 평판이 아주 잘 났더군... 돈에 환장한 타락한 장교... 육사출신에 불만이 많은 3사 출신 주정뱅이...

한참을 끄덕이던 권부장, 채서를 획- 보고는

권부장

자네는, 자네의 조국을 사랑하나?

채서

물론입니다.

권부장

나도, 내 조국을 사랑한다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 알고 있나?

채서

... 북한 말씀이십니까?

권부장

(끄덕이며) 끊이지 않는 망언과 테러에, 이제는 핵미사일까지... 공산주의자들이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 건 익히 간파하고 있었지만... 이젠 그 수준마저 넘어섰네. 공산주의는, 정신병이야. 정신병... 그것도 전염성까지 있는 아주 지독한 정신병이지...

발을 옮기는 권부장, 뒤 따르는 채서.

권부장

그럼에도 우린 저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반대로 저들은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지. 정보사에서든 국내에 머무는 북한 고정간첩수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지 않나.

채서

네.

권부장

아니, 정보사는 물론 안기부 내부마저 의심해야겠지. 그렇기에... 지난 1년 6개월간, 자네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어. 우리 군 내부에 침투해 있는 고정간첩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채서

그럼, 중국 사업에 대해 떠들고 다니게 시키신 것도...

권부장, 멈춰 서서 비석을 어루만지며

권부장

우리도 이제 저들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지... 그래야 공산주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친 순국선열들이... 맘 편히 눈 감지 않으시겠나? (사이) 결국 자네가 받았던 훈련들, 그리고 스스로 무너졌던 교육지계, 모두 목적은 하나였네.

비장한 채서의 얼굴, 보는 권부장.

권부장

안기부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그렇기에 활동 중 적들에게 발각되어도 자네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만에 하나... 작전 중 사망할 경우, 조국을 위해 목숨 받쳤음에도... 이곳에 묻힐 수 없는... 블랙 요원이 되는 것이네. (사이) 괜찮겠나?

다소 놀라는 채서.

채서

... 10년 전... 부장님을 사단장으로 모실 때부터 제 신념은 단 하나입니다. 군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대견하게 채서를 보는 권부장.

## 19. 현충원 / 주차장. 아침

넓은 주차장에 혼자 선 대형 세단, 차량 쪽으로 오는 채서와 권부장.

권부장

그래 그동안 자네가 공부한 중국은 어떠했나?

채서

최근 중국은 본격화된 개혁, 개방 정책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뒤섞여 격변 중이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부장

때문에 초조해지는 건 북한이지. 소련에 이어 중국... 뒤를 봐줄 강대국이 사라지니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까지.

채서 (v.o)

고난의 행군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트렁크를 여는 권부장, 안에 든 검정색 스포츠백 두개.

권부장의 턱짓에 가방을 열어보는 채서. 안에 가득 든 만 원짜리 다발들.

권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은 북한은 핵을 개발하겠다고 위협하는 발작 증세를 보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외화 벌이에 혈안이 되어 베이징으로 요원들을 내보내고 있네.

채서

그럼, 저의 다음 임무는...

권부장

(끄덕이며) 베이징으로 가게. 가서 그들에게 접근해.



20. 몽타쥬 - 흑금성

- 베이징 공항 활주로. 낮

KAL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 시내. 낮

부동산 중개 업체 직원을 따라 다니는 채서, 여기저기 사무실들을 보고 다닌다.

- 산기슭, 백숙집. 낮

한 상 가득 차려진 평상에 마주 앉은 권부장과 채서.

권부장

베이징 북한 요원들은 숙박비와 식비가 부족할 만큼 상황이 아주 어렵다고 하더군. 그 지점을 공략하면 효과적인 걸세.

막걸리 주전자를 내미는 권부장, 거절 의사를 밝히는 채서.

권부장

이건 전장으로 떠나는 장수에게 내리는 술이야. 평양이 무너지는 날 대동강에서 다시 마실 그 날까지, 마지막 술로 받아두게나.

술을 받는 채서, 고개를 돌려 그대로 들이키고는

채서

그런데 부장님, 저의 정체를 아는 게 모두 세 사람이라 하셨는데, 나머지 두 명이 누군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권부장

나만 알면 되지 않나?

채서

물론입니다.

권부장 잔에 공손히 술 따라주는 채서.

- 사무실 입구. 낮

한 칸짜리 사무실 입구에 팻말을 거는 채서. '서울 무역'  
사무실 책상에 '대표이사 박채서' 명패를 놓는 채서.

권부장 (v.o)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북한 물품을 사려는 무역업자로  
위장하게. 그 외 필요한 부대 사항들은 내가 정리해주지.

- 유치원 앞. 낮

채서에게 안긴 민정, 손에 권 명함을 한참 보다가

민정

그럼 아빠 이제 사장님 된 거야?!

채서

그럼~ 이제 아빠 사장님이야. 박 사장님.

우와~ 사장님~하며 멋모르고 신나하는 민정.

- 순댓국집 내부. 밤

손님도 주인도 안 보이는 허름한 순댓국집 내부, 불들이 꺼졌고 채서와 권부장 자  
리에만 형광등이 켜졌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가는 권부장, 주인 없는 계산대  
위에 만 원짜리 십여 장을 놓고 나가려는데 채서의 허름한 양복이 눈에 띈다.

권부장

완벽하게 장사치가 되어야 하네. 표정, 옷차림, 행동... 뭐  
하나 어긋나는 순간, 적들이 자네를 알아 볼 테니 말이야.

- 사무실. 낮

깔끔하고 고급 진 양복을 차려 입는 채서,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진다.  
책상 위 양복 상자 안에 든 엽서를 채서가 들어 보면- 그림이 보이는데  
침대에 누운 소녀, 창 밖 텅굴에 하나 남은 잎사귀 그림.  
뒷면을 보면, 손 글씨 한 줄 '조국의 마지막 잎새'  
채서, 결의를 다지는 얼굴 위로.

권부장(V.O)

너무 진지해서도 안 되네. 그 또한 상대에게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으니 말이야...

심각한 얼굴로 거울을 보던 채서,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인다.

권부장(V.O)

너무 진지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서 상대에게 신뢰를  
잃지 않을 정도의... 인간적인 인물... 하지만 금전관계에서  
만큼은 철두철미한 그런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 채서 집. 낮

티브이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을 보고 있는 채서, 극중 배우의 대사 톤을 연습  
한다. 다양한 톤으로 인사말을 연습하는 채서.

채서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 워커힐 호텔, 빌라. 낮

사무실처럼 꾸며진 안기부 안가, 어둠이 내린 창밖을 보고 선 권부장.  
커다란 노트북 앞에 앉은 이실장, 타이핑을 하다 말고는...

이실장

부장님 공작원 암호는 어떻게... 임의로 붙일까요?

권부장

그렇게 해 (창 밖 보다가) 아니, 잠깐... 이렇게 하지.  
공작원, 흑금성...

이실장

흑금성? 무슨 의미신지...?

권부장

(웃으며) 별 뜻 아니야.

이실장, 타이핑을 친다. 새겨지는 글씨 '코드명 흑금성'

- 김포공항 앞.

택시에서 내리는 채서 - 이하 흑금성 - 가 공항으로 들어간다.

## 21. 베이징 시내 도로. 낮

폭염이 내려 찌는 도로, 달려가는 왜건 차량. 자막 '3개월 후, 베이징'  
왜건 조수석에 탄 양복 차림의 흑금성, 얼굴 가득 흐르는 땀.  
운전석의 남자 - 재일동포 키요하라 -, 생수통을 건넨다.  
못마땅하게 보다 받아든 흑금성, 받아 들고 마신다.

## 22. 베이징 / 물류 창고. 낮

곳곳에 쌓인 컨테이너들, 앞서가던 키요하라, 컨테이너 문 하나를 활짝 연다.  
가득 든 상자들,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흑금성과 키요하라.  
상자를 뜯으면 '고려신덕샘물' 상표가 붙은 생수들, 황당한 흑금성.  
그러거나 말거나 서류를 흑금성 손에 넘기는 키요하라, 약간 어색한 한국말로

키요하라

신덕산 샘물은 정결도가 높고 이온과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서류에 보듯이...

흑금성, 서류를 키요하라에게 던지듯 돌려주고는 말을 던지는데 말투가 달라져있다.

흑금성

야 키요하라... 내가 베이징 3개월 뺨치기 해서 물가지고 돌아가리?

키요하라

이 물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고 있고...

흑금성

(정색하며) 북한이랑 조총련 합작, 일본 수출했다가 개아작나고. 일본이 안 되니깐, 한국에다 재고 물이하겠다고? 하나 참- 그리고 키요하라 너, 한국 생수회사가 신덕샘물로 92년에 상표 등록한 거 알아 몰라? 이거 들고 가면 팔기도 전에 상표권 분쟁이라고 새끼야!

눈을 피하는 키요하라, 하- 갈잡은 흑금성.

흑금성

나 참- 이게 여러 각도에서 엿을 먹이려고 하네? (겨우 참고)  
북한에서 택 떼기하고 박스같이해서 한국 넘길 아이템 가져  
오라니깐. 담배도 있고 자동차도 있잖아!

키요하라

말했잖습니까. 그런건 위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뜨내기들  
은 선 타고 못 올라갑니다.

흑금성

선? 너한테 위로 가는 선이 있긴 있는 거야?

키요하라

여기 신덕 샘물 물량 전부 안으면, 선 이어 드립니다.

흑금성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밥 사먹이고 술 사준 게 얼마  
냐?! (보다가) 넌 물건 소개하고 난 마진 남기고. 그게 우  
리 계약이었는데, 성사된 거 있어 없어? 어?! 근데 그 와중  
에 딸이 상품 딜을 쳐? 키요하라. 넌 아웃이야 새끼야.

놀란 키요하라. 설마 싶어 보는데, 가버리는 흑금성.

## 23. 시내도로. 낮

- 물류 창고 앞. 낮

키요하라, 사색이 되어 '박상, 박상' 부르며 쫓아오지만 짜증 가득한 얼굴로 택시를  
타고 가버리는 흑금성. 아이 씨- 일본어로 중얼대던 키요하라, 핸드폰을 꺼내 든  
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조금 전까지 어눌했던 얼굴을 지워버리는 키요하라.

키요하라

네, 저 조재힙니다.

- 택시 내부. 낮

사이드미러 속, 전화하는 키요하라의 모습이 점점 멀어진다.

조수석의 흑금성, 키요하라를 끝까지 응시하며 씩 웃는다.

## 24. 베이징 - 대외경제위 사무실. 저녁

차를 마시는 60전후, 백발의 남자 김명수.

그의 머리 위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부자의 초상화.

손에 들린 명함 '서울무역 대표이사 박채서' 명함을 만지작대는 김명수.

그의 앞, 날카로운 눈빛 능숙한 한국말로 입을 여는 키요하라.

키요하라

생수 물량을 떠안았다면 윗선을 캐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겠지만, 시장 조사도 늘 철저하고... 제 판단엔 그저, 돈  
에 대한 갈증이 큰 사업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재킷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에 두는 키요하라.

키요하라

요녕유한공사에서 담배 수익이 넘어왔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가는 키요하라. 김명수가 봉투를 열면, 100달러 10여장.  
한 장을 빼서 주머니에 슬 넣는 김명수, 전화를 든다.

김명수

... 처장 동무. 조재호가 왔다 왔습니다, 네 여태 그물에 걸  
린 이물질은 없습니다. (듣다가) 지시내리겠습니다 처장  
동무.

담배를 비벼 끈 김명수, 전화 버튼을 누른다.

김명수

정과장 동무. 서울 박채서 사장 감시를 총력 체제로 돌리라는  
처장 동무의 명령입니다.

## 25. 베이징 곳곳. 밤

- 백화점 매장. 밤

사람들로 가득한 백화점, 상품들을 둘러보며 핸드폰 통화하는 흑금성.

흑금성

아니야 오늘도 물건 샘플 보고 왔어. 아이템이 워낙 많아서  
고르고 있는 거야. (애기 듣는다) 아 진짜 그렇다니깐. 안  
그래도 비자 때문에 한국 들어갔다 나와야 해...

흑금성의 조금 뒤, 낡은 정장을 입은 30대 남녀가 흑금성을 속 한 번 쳐다본다. 롤  
렉스 매장 앞에 멈춰 선 흑금성, 통화를 하며 쇼케이스 안을 가리키면 시계를 꺼내  
보여주는 점원, 들어서 보는 흑금성.

흑금성

어, 민정아 아빠야. 그래 맞아 박사장님이야. 우리 민정이  
키 얼마나 컸어? 이야, 3센치나?

30대 남녀, 흑금성의 뒤를 천천히 지나간다.

시계를 보면서, 통화를 하면서도 그들에게서 주의를 놓지 않는 흑금성.

- 거리. 밤

인파속을 걸으며 계속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흑금성, 뒤가 신경 쓰인다.  
하지만 길보기엔 평온한 척.

흑금성

아니 김사장님은 이쪽에 더 아는 사람 없어?

그러다 멈춰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마침 뒤에서 발을 멈추는 한 남자, 급하게 핸드  
폰을 꺼내 중국말로 통화를 한다. 힐끗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흑금성.

- 호텔 로비. 밤

통화를 하며 들어서는 흑금성.

흑금성

북한 상품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취급 업자들도 다들 자잘  
해. 돈이 안 돼요 이게. 다 잔돈이야.

- 호텔 방. 밤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옆방의 소리들로 어수선했던 분위기, 그 가운데 언뜻언뜻 들리는 흑금성의 목소리, 점점 또렷해지려는가 싶었는데... 화장실, 세면대 배수관이 분리된 부분, 동그란 집음기가 달려 있다. 집음기 끝에 연결된 청진기를 귀에 꽂은 낯은 정장의 여자, 백화점에서 봤던 그 30대 여자이다. 청진기로 들리는 흑금성의 목소리.

#### 흑금성 (E)

알잖아요. 입장료는 얼마든지 낼 건데... 입장 티켓을 어디서 끊는지 모르겠다니깐.

호텔 침실, 벽에 붙은 유리컵 모양의 콘크리트 집음기.  
백화점에 있던 남자도 집음기 끝에 달린 청진기를 귀에 꽂고 집중.  
손에 든 메모지에 키워드들을 계속 메모.

#### 흑금성 (E)

정 안 되면 철수해야지. 내후년에 홍콩 반환될 거니깐 그 쪽으로 뚫어도 되고.

남자 요원, '철수 가능. 홍콩' 등을 다시 쓰고.

- 건너편 방 / 흑금성의 객실. 밤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통화하는 흑금성, 티브이를 틀며

#### 흑금성

맥시멈 보름 안에 쇼부칠거야. 그래, 회장님도 소스 있으면 바로 토스해주시고. 그래 다시 통화합시다. (연습한 톤으로 능청맞게) 많이 파세요.

핸드폰을 내리고 티브이 볼륨을 높인 흑금성, 충전 케이블을 핸드폰에 연결하더니 전원 버튼을 누른다. 그제야, 꺼져 있던 핸드폰 액정에 불이 들어오며 켜진다.

(CUT TO)

벽 앞에 앉은 흑금성, 맞은 편 객실의 동향을 살핀다. 곧 인기척들, 나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등... 와이셔츠를 벗는 흑금성, 복부에 덕지덕지 붙은 청색 테잎. 그 아래 놓인 소형 녹음기. 테이프를 떼서 녹음기를 분리하는 흑금성, 배 곳곳, 테이프들을 붙였는지 별정계 달아오른 상처들. 지친 한숨을 내쉬는 흑금성, 벽에 기대며 퍼질러 앉는다.



## 26. 흑금성 객실 / 서울. 새벽

책상에 앉아 다이어리 위에 펜을 움직이는 흑금성

흑금성 (v.o)

북한과 선이 닿은 것으로 알려진 시바다 키요하라와 접촉한 지 3개월. 아직 북한 윗선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따라붙는 인원이 기존 네 명에서 아홉 명으로 늘어났다.

잠시 펜을 놓고 생각에 잠기는 흑금성.

- 3개월 전, 서울 순댓국집.

흑금성 손에 들린 키요하라의 사진.

권부장

시바다 키요하라. 조총련계 재일동포. 이름과 역할 이외엔 알려진 게 없는 자라... 지푸라기라고 보는 게 나을 거야. 어떻게든 잡아만 낸다면 밧줄로 엮어 타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흑금성

베이징에 있던 기존 안기부 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생각하던 권부장, 옆에 둔 파일에서 사진을 꺼내 내밀며

권부장

화이트 요원들이 공개적으로 만들어둔 라인이야. 화교 출신인데 아는 것도, 아는 사람도 많아 부탁하면 뭐든 이뤄진다고, 보통 장박사라고들 부르지.

사진을 보는 흑금성, 조잡하고 더러운 인상의 50대 남자 장박사.

권부장

북한 쪽과 두터운 친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잇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실상 북에서도 남에서도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네. 만에 하나 라인이 엉킬 경우를 대비해 얼굴만 익혀두게.

흑금성

... 그럼 결국, 키요하라를 밧줄로 엮어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겁니까.

권부장

(끄덕이며) 박소령 자네를 믿네.

- 호텔 객실.

다이어리에 계속해서 일기를 쓰는 흑금성.

흑금성 (v.o)

감시 인원이 늘었다는 건, 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뜻으로 보인다. 신경이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 공작 상황을 전환시킬 때가 온 것 같다.

다이어리를 들고 호텔 금고를 여는 흑금성, 다이어리를 넣는다.  
언뜻 보이는- 권총과 현금 다발, 작은 기계 장치들.

## 27. 호텔 비즈니스 센터. 아침

- 비즈니스 센터. 아침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이 구비된 공간.

문을 열고 들어오는 흑금성, 창문 넘어 바깥 동향을 살핀다.

오가는 사람 없이 조용한 외부, 작은 기계(도청 감지 장치)를 꺼내

팩스 주위로 움직여대는 흑금성. 반응 없는 감지 장치.

팩스 기계에 문건을 꽂는 흑금성, '서울무역 정기 보고' 라는 타이틀.

82-02-443 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입력해 전송시키는 흑금성.

- 3개월 전 순댓국집. 밤

말을 잇는 권부장.

권부장

박소령 자네를 믿네. 하지만... 지원 사격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준비해 놓을 테니 언제든지 얘기 해.

- 비지니스 센터. 아침

전송완료 음이 들려오자 문건을 구겨 옆 쓰레기통에 버리는 흑금성, 나가려는데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외국인 남자.

남자 (영어)

실례했습니다. 혹시 다 쓰셨나요?

흑금성 (영어)

(미소와 함께) 네, 사용하세요.

흑금성이 나가자 휘파람을 부르며 팩스에 용지를 꽂는 외국인 남자, 그런데 're-dial' 버튼을 누른다. 액정에 뜨는 흑금성이 보냈던 82- 02- 443. 주위를 슬쩍 신경 쓰더니 메모지를 꺼내는 남자, 넘겨대다가 번호들을 찾아낸다. '서울 무역' 옆에 쓰인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들. 팩스 82-02-443...

- 호텔 로비. 아침

신문을 펴들며 비지니스 센터 앞을 지나가는 흑금성, 신문 너머 비지니스센터 안, 외국인 남자를 감시하듯 힐끗 보고는 지나간다.

## 28. 위커힐 빌라 / 안가. 아침

이실장, 암호표를 펴두고 '서울무역 정기보고' 팩스 용지를 읽어 나간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갈색 코트에 중절모- 권부장, 벌떡 일어서는 이실장.

이실장

새벽에 서울무역으로 팩스가 왔습니다.

권부장

해독했어?

이실장

네, 태평양작전 개시 요청입니다.

권부장

(끄덕이며) 시작하지.

급하게 나가는 이실장.

## 29. 창고 내부. 아침

이실장이 ‘태평양실업’ 이라고 쓰여진 잠바를 입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창고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인 옷더미들을 헤집는 안기부 위장요원 - 태평양실업 잠바 입은 - 들에게 다가오는 이실장.

이실장

시작해.

명령을 받고 이동하는 요원 하나, 비장한 얼굴로 핸드폰을 누르고는

태평양 요원 (중국어)

네 여기 한국 태평양실업입니다. 아니요 반값지가 않은 게 지금 보내주신 옷들 이거, 불량이 너무 많아요. 10분의 1도 못 건지겠는데? 혹시 이거 택배기 한 거 아십니까? 아 왜 모른 척을 하세요. 중국 제품 북한에 보낸 다음, 상표만 떼서 한국으로 넘긴 거 아니냐고요!

하며 이실장 눈치를 보는 요원, 더 세게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이실장.

## 30. 장사장 사무실. 아침

- 베이징 무역회사. 아침

영세한 사무실. 전화 받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직원.

직원 (중국어)

그래도 대금부터 결제를 해주시면... 저희가 물건을 다시...

- 사장실. 아침

1달러를 포함, 동전까지 꼼꼼히 세는 장사장, 헐레벌떡 들어오는 직원.

장사장

입금됐어?

직원  
큰일났습네다. 남조선 종간나들이...

### 31. 경제위 사무실 / 중국 공장. 낮

김명수 앞에 선 도청 남녀들, 그들이 쓴 메모지를 넘겨보는 김명수.

남자 요원  
분석했지만 암호문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여자 요원  
남조선 내부에도 재조사를 시켰는데, 역시나 출신 성분으로 인한 진급 한계에 불만을 가진 분자가 확실해 보이고, 이 때문에 부부생활은 물론 부모자식 관계에도 금이 간 상태라고 알려 왔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것이 입만 열면 돈 얘기라고...

옆에서 대기하던 비지니스 센터의 외국인남자, 구겨진 팩스용지를 김명수에게 내민다. '서울무역'의 팩스.

외국인 남자  
(완벽한 북한말) 역시나 철수하겠다는 보고섭니다. 과장 동무... 외람되지만... 같이 사업을 합작해보는 것이... 저희 과업도 고난에 부딪친 마당에 이대로 박사장마저 돌아간다면...

보던 김명수, 사무실 구석 소파에 앉은 남자를 본다.  
날카로운 인상의 정과장, 담배를 핀다.

김명수  
정과장 동무, 이물질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야하지 않겠어?

대답 없는 정과장, 카라에 붙은 김일성 뱃지를 후후- 불어 댄다.  
그 때 따르릉- 울리는 전화벨.

김명수  
대외경제위... (놀라 벌떡 일어나며) 네 부장동무 (듣다가)  
네?!!

이야기를 한참 듣던 김명수, 전화를 끊고 긴 한숨.

정과장

... 평양이요?

김명수

장성택 부장의 조카 장성훈이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정과장

뭐요?! 장성훈이면 중국 물품을 남조선으로 팔고 있지 않았소? 어찌 된 일이요?

김명수

태평양실업이라는 남조선 업체가, 물건에 문제가 많다며 불평불만을 터트리며 대금을 보내지 않았고, 장성훈이는 그 돈을 받아 중국 업체에 줘야했는데 그 지불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과장

장부장의 조카면 고위 간부급인데, 당에서는 어찌하랴하오?!

김명수

세 시간 전에 사단이 나 베이징 전체에 소문이 퍼졌는데 어찌 모르고 있냐는 질책과 함께... 이번 사태는 공화국의 수치니, 지금 당장 장성훈 문제를 해결하라 지시하였소.

정과장

물려줘야 할 금액이 어찌 되오?

김명수

미화 15만불이요.

정과장

경제위 보유 금액은?

김명수

다 끌어 모아도... 3천 불이요.

김명수, 정과장, 요원들 다들 절망감에 어쩔 줄을 모르는데.

김명수

우선 처장 동무께 보고를 드려야...

전화를 들려는데, 먼저 따르릉- 울리는 전화.

김명수

네, 처장 동무 ... 네?!

어안이 멍멍한 얼굴로 전화를 내려놓는 김명수.

김명수

장성훈이... 풀려났다고.

정과장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 것이요?!

김명수

그게... 남조선 박채서 사장이...

- 조금 전. 중국 옷 공장 앞. 낮

택시에서 내리는 흑금성, 선글라스를 낀 당당한 모습. 손에 든 백화점 쇼핑백.

- 옷 공장 내부. 낮

옷을 찍어내는 노동자들 사이를 걸어가는 흑금성,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 옷 공장 사장실. 낮

문을 열고 들어오는 흑금성, 책상에 쇼핑백을 올리며...

흑금성 (중국어)

물품 대금 15만불에 수수료 만불이오. 장성훈 고발을 취소  
해주시죠.

돈 확인하고 입 벌어지는 중국 사장.

-경제위 사무실. 밤

자욱한 담배연기, 소파에 앉아 말없이 담배만 피워대는 김명수와 정과장.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서면 벌떡 일어나 각 잡는 둘.  
담배 연기를 뿜으며 모습을 드러내는 40대 초반의 남자.  
금테 안경에 차디 찬 인상, 리철이다.

리철

(낮게 깔린 저음) 간나 새끼들... (참으며) 앉으라우...

### 32. 흑금성의 방. 밤 + 아침

긴장된 얼굴로 서성대는 흑금성, 핸드폰을 들어 연락처에서 '키요하라'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전화기 (E, 중국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은 흑금성.

(CUT TO)

바깥으로 여명이 밝아오는 가운데 작은 소파에 몸을 파묻은 흑금성, 깊이 잠이 들었다. 빠리리리- 핸드폰이 울리자 곧바로 정신 차리는 흑금성, 전화벨이 더 울리도록 일부러 기다린다. 잠시 후,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으며

흑금성 (중국어)

박채섭니다.

리철 (E)

(정적) ... 박채서 선생. 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외경제위에 리처장이라고 합니다. 선생을 지금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요.

흑금성

지금이요? (잠시 생각하다) 예, 뭐... 어디서 뵙까요??

리철 (E)

지금 당장 호텔 앞으로 나오시오. 차를 보내겠소.



급하게 바지를 입는 흑금성, 금고로 가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다 손을 멈칫,  
녹음기를 들고 고민하는 흑금성.

### 33. 베이징 거리. 아침

- 호텔 앞. 아침

호텔에서 급하게 나오는 흑금성, 빠리리-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전화 받으면

리철 (E)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호텔 후문으로 나오시오.

다시 호텔로 들어가는 흑금성.

- 호텔 뒤쪽 거리. 아침

후문에서 나와 통화하며 걷는 흑금성.

리철 (E)

후문으로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운남 쌀국  
수집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그쪽으로 오시죠.

발길 돌리던 흑금성. 문득 멈춰 선다. 상대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는 흑금성, 휴대폰을 든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두리번대는 흑금성을  
뒤통수 하고 보는 시선들. 우선 오른쪽으로 걷는 흑금성. 곧 보이는 운남쌀국수.

- 쌀국수집 내부. 아침

문을 열고 들어가면, 흑금성을 보는 몇몇 손님들, 국적을 알 수 없는... 동양 사람들  
그리고 서양인 남녀들도 몇몇. 그들의 시선을 느끼지만, 태연하게 테이블들 사이를  
걷는 흑금성.

리철 (E)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나오시오.

하고는 뚝 끊기는 전화, 지시를 따르는 흑금성.

- 뒷골목. 아침

급히 나오는 흑금성, 옆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끼익- 급정거!! 놀랐는지 멍하게 보기만 하는 운전자, 동양인 여자. 그 여자마저 심상치 않아 보이는 흑금성. 그 때 다시 울리는 핸드폰.

#### 리철(E)

왼쪽으로 이동해 모퉁이를 돌면 식당이 보일 것ियो.  
그리 들어가시오.

고개를 돌리던 흑금성, 오른쪽 길 끝에 휴대폰을 든 모자 쓴 남자를 순간 포착 하지만 애써 못 본 척, 자연스레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모자 쓴 남자, 흑금성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어폰으로 연결된 무전기에 대고

#### 남자

들러붙은 사람은 없습니다.

- 식당 앞. 아침

모퉁이 돌아 바로 보이는 북한 식당 '고려관' 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들어가는 흑금성.

### 34. 고려관 내부. 아침

흑금성이 들어서는 순간, 옆에서 나타나 붙잡는 북한 요원들 거칠게 몸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복부 쪽을 검사하는 그들, 뭔가를 만지고 셔츠를 까보면, 허리띠 가운데 큰 버클. 수색당하며 주위를 체크하는 흑금성, 요원들을 지도하듯 선 정과장, 멀쩡 감치 떨어져 앉은 남자 김명수.

#### 리철(V.O)

어허, 정중하게 모시랬더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식당 뒷문으로 들어오는 리철, 지난밤의 차가운 얼굴과는 달리 과하게 미안한 얼굴을 만들어 보이는 게 마치 다른 사람 같은.

#### 리철

(흑금성보고) 요새 공화국을 저어하려는 잔망스러운 것들이 날뛰는지라, 동무들이 잠시 은혜를 잊고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놀라셨을텐데 기분 푸시지요.

흑금성

(어리둥절하다 이내 미소) 꿀을 먹으려다 보면 벌에도 쏘이는 법이죠. 괜찮습니다.

사람 좋게 미소를 만들어내는 흑금성, 실없이 웃어 보이는 리철.

리철

하하- 근래 보기 드문 호연지기요. 이리 앉으시지요.

리철이 손짓하자 요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정과장, 김명수도 따라 나가고... 그 사이 흑금성은 빠른 시선으로 그들 얼굴을 익혀둔다. 흑금성 맞은편에 앉는 리철, 실실 웃으며 명함을 꺼내더니 흑금성에게 주지 않고 자기 앞 테이블에 놓는다.

리철

티나지 않게 살아온 변변찮은 인물인지라 소개드릴 것도 딱히 없고, 그저 리처장이라 부르시면 됩니다.

흑금성

(명함 건네며) 서울무역 박체섭니다.

리철

박선생님과의 만남이 오늘 처음이 될지 마지막이 될지는 내 지금 답을 내릴 수 없겠지만...

흑금성

(웃는 얼굴로 말을 자르며) 답 없는 문제도 있는 법이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리철

(피식 웃음) 그럼, 먼저 왜 장성훈이를 도와주셨는지 편하게 말해보시지요.

흑금성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투자입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

리철

(피식 웃음) 종소, 피아간 말이 오감에 막힘이 없으니 에둘러 가지 말고 직진으로 가시지요. 투자 심사를 위해 딱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조선 정보부대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흑금성

(즉답) 네. 육군 정보사령부에 있었습니다.

리철

퇴출 전, 눈 더미 같은 돈을 빌리고 다녔습니까?

흑금성

(물 한 모금 마신다) 거... 돈이라는 게 어찌 그리도 빨리 사라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리철

(웃으며) 이거 놀랐습니다. 정보사령부는 마르크스의 발언까지 공부합니까?

어이쿠- 하며 물을 흘리는 흑금성, 일부러 덤병대는 모습을 보인다.

흑금성

(물을 닦으며) 혹시... 두 번째 질문이신 건가요?

리철

화통하게, 덤으로 쳐주시지요.

흑금성

알겠습니다. 예 뭐... 기왕 어려운 만남을 가진거니깐... 한국에서, 공산권의 경제난을 지적할 때 인용되는 경우가 있어 오고가며 주위들었죠 뭐. 뉘 뜻 인진 잘 몰라요.

리철의 표정을 살피는 흑금성, 변화 없이 실실 웃던 리철,

리철

자본권도 공산권도, 알다가도 모를게 돈인데 (사이) 그걸 못 쥐어서 땀캐나 뺏던 분이, 어떻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장성훈이를 도울 수 있는 겁니까?

흑금성

(진지해진다) 애초에 사업 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려 모았던 것이고, 전역 후 투자자를 찾아내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한국에서 시험 삼아 몇 달 돈을 굴렸는데, 그게 또

운 좋게 돈이 불더라구요. 잘 모르시겠지만 자본주의란게 원래 그렇습니다. 알다가도...

리철

(자르며)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공화국에선 무얼 사가고 싶으신 겁니까?

흑금성

자본에 눈이 어딴겠습니까. 돈이 된다면 뭐든 좋습니다.

리철

마지막입니다.

흑금성

네.

리철

남조선 정보를 넘겨주실 수 있겠소?

살짝 놀랐던 흑금성, 이내 다시 웃어 보이며.

흑금성

(난감한 웃음) 과속하다 탈선해서 이젠 농담까지 하시는군요.

리철

제대로 직진한 겁니다.

흑금성

... 국가 기밀을 넘기라는 애깁니까?

리철

그런 날카로운 단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이고. 아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 성의 표시만 해주셔도 만족하겠습니다.

흑금성

아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사이) 정보사 나온 지 오래 되서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어떡하죠?

리철

알려면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간의 신뢰를 위한 제

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지요.

흑금성

장성훈 건으로 신뢰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리철

물론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최초로 저를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테이블 위 명함을 손가락으로 툭- 툭 두드리며 리철.

흑금성

혹시...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리철

들어보지요.

흑금성

리처장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리철

에두르십니까.

흑금성

(정색한 얼굴)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리철

위치상, 둘 다요.

흑금성

그래도, 순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리철

때때로 달라집니다.

흑금성

저를 만날 땐, 돈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리철

... 군에서 추방당한 뒤 사업을 한다는 거? 나는 믿으려 하

오. 다만... 군에서 추방당한 사람을 믿긴 쉽지 않은 것이  
오.

리철, 엮어뒀던 명함을 밀어 흑금성 앞에 두고는 일어선다.  
흑금성도 일어서고 순간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  
하지만 각자의 만들어진 얼굴을 지우지 않는 두 사람.

리철

과업 수행에 있어 위대한 점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사  
를 취한 것이니 너그러운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대  
접할 건 없으니, 땀이나 들고 가시지요.

하고 자리 떠나는 리철, 주방을 향해 손가락을 부딪쳐 딱- 소리 낸다.  
기다렸다는 듯 주방에서 냉면을 들고 나오는 주방장.  
흑금성 앞에 두면 들어서 옥수를 꿀꺽 꿀꺽 마시고는 그릇을 내려놓는 흑금성,  
10달러 지폐를 옆에 두고, 명함을 들고는 가게를 나간다.

흑금성

많이 파세요.

뒷문으로 나가던 리철, ‘저 자식 보게’ 하는 얼굴로 뒤돌아 보다 나간다.

### 35. 서울 / 산기슭 등산로. 아침

이른 새벽 안개 속에 험싸인 등산길, 등산복 차림의 권부장. 손에 들린 명함  
‘대외경제위원회 심사 처장 리철’ 이란 타이틀 아래 전화 번호 하나만 달랑.  
곁에 섰던, 역시나 등산복 차림의 흑금성.

권부장

북한 고위 블랙 인사에게 (명함 들며) 하얀 페인트를 칠해  
노출시켜 버리다니. 고생했네!

흑금성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부분은...

조심스레, 배낭에서 문건을 꺼내 건네는 흑금성, 넘겨보는 권부장.

권부장

이 정도 정보면... 웬만한 기관장들도 숙지하고 있는, 컨피덴셜급에도 못 드는 내용들인데... 이걸로 저들을 설득할 수 있겠나?

흑금성

그렇다고... 1급 이상을 내보낼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안위가 걸린 일인데... 성의만 표시하란 말에 그들의 진의가 있을 겁니다.

생각하던 권부장, 문건을 돌려주며.

권부장

좋아. 승인하겠네. 그리고 사물함에 도청을 막을 비화 휴대폰을 비롯 몇 가지 준비할테니, 베이징 사물함을 확인해보게.

발을 옮기는 권부장, 뒤 따르는 흑금성.

### 36. 베이징 공항 앞. 낮

공항에서 나오는 흑금성, 리철 명함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건다. 그런데

전화기 (E, 중국어)

회선 연결 용 비밀 번호를 3초 내에 눌러 주세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3초. 뚝, 끊기는 전화. 이게 뭔가 싶은 흑금성. 그런데, 곧바로 울리는 흑금성의 핸드폰. 받으면

리철 (E)

박선생님, 전화 주신 거 환영합니다.

흑금성

저... 아무래도, 저번 만남이 마지막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리철 (E)

신뢰를 주시려는 겁니까?



### 37. 고려관 식당. 저녁

리철, 냉면을 후루룩 삼키며 흑금성이 준 정보 문건을 넘겨본다.  
맞은 편, 긴장감을 티내지 않기 위해 태연한 척 냉면을 게걸스레 먹는 흑금성.

리철

남조선 김용덕 의원이 두 집 살림을 한다? 상대는 텔런트 안수진? 이게 뭐란 말입니까?

흑금성

(쩍쩍대며) 뭐가 뭐란 겁니까? 글자 그대로지.

리철

사실이나 말ियो.

흑금성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진 아무도 모르죠.

리철

안수진이... 놀랐소... 헌테 박선생님 어찌면 좋겠소. 이것 말고는 (흑금성 똑바로 보며) 야전교범. 위성지도. 전혀 세로울 게 없는데 말ियो? 이게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오?

흑금성

(입 닦으며) 흑시... 영상 자료도 확인하셨습니다까?

리철

영종도 해변을 찍은 시청각 자료 말입니까? 백사장이 아름답더군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흑금성

... 그 전에도 말했듯이... 정보사에서 나온지 오래라, 이게 한계예요. 아 좀 살려주세요. (배 만지며) 아 속이야.

보던 리철, 예전 그 실없는 웃음으로 문건 들어 보이며.

리철

중소. 어쨌든 성의 표시는 하셨으니... 통 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흑금성

그럼, 이제 정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입장이 되신 겁니까?

리철

그건... 당에서 판단할 일이지요. 다시 연락드리겠소.

하며 냉면 국물을 마시고는 일어서는 리철.

### 38. 무역공사 북경지사. 밤

- 무역공사 앞. 밤

'KOTRA' 간판이 붙은 입구, 셔터를 막 내리려던 경비를 향해 택시에서 막 내린 흑금성이 '잠깐만요' 하고 달려온다. 주변 사람들을 능숙하게 결눈질한 뒤 내부로 들어가는 흑금성.

- 무역공사 내부. 밤

몇 안 남은 직원들이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 흑금성이 들어온다. 사무실을 가로질러 구석에 붙은 작은 방으로 가는 흑금성, 1/3쯤 열려있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면 책상에 앉은 코트라 여자 직원에게 KOTRA 마크가 찍힌 카드를 내민다. 카드를 들고 안에 붙은 작은 별실로 들어가는 여직원.

(CUT TO)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와 흑금성에게 건네주는 여직원, 상자를 들고 나가는 흑금성.

- 코트라 화장실. 밤

변기 칸에 앉은 흑금성, 밀봉된 상자를 열면 회색 휴대폰과 달려 뭉치 그리고 작은 파우치 세 개. 파우치 안에 든 시계 케이스 열어보면- 금색 롤렉스 시계.

### 39. 베이징 공원 운동장 / 한국 건물 교차. 밤

농구를 하는 학생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행한 운동장, 운동장 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회색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흑금성, 연신 주위를 경계하는 시선.

흑금성

네, 확인했습니다. 근데 부장님... 이 롤렉스 시계는 직접 구입하신 겁니까?

- 건물 내부. 밤

화려한 소파에 앉아 통화중인 권부장.

권부장

롤렉스 본사에서도 진품이라 판정할 만큼, 안기부 모든 기술력을 투입해 만들어낸 걸작이니, 안심하고 사용하게. (낮게) 그럼, 리철은 언제쯤 접촉할 것으로 보이나?

- 운동장. 밤

흑금성

저쪽 경계 사정이 워낙 나쁘니, 수일 내로 재 접촉해 올 것 같습니다.

권부장 (E)

이제, 저들 목소리를 따라하지 않겠나?

- 건물 내부. 밤

흑금성 (E)

저... 본격적인 사업 이야기 전까진, 녹취는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권부장

마지막 접촉했을 때 몸수색이 없었다며? 그건 자네를 파트너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네... (흑금성이 대답 없자) 내가 예전에 어떻게 가르쳤나.

흑금성 (E)

... 모든 접촉을, 녹취하라... 하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 입구에 도열해 대기한다.

권부장

끊어야겠네.

핸드폰 닫으며 일어서는 권부장, 그의 옆으로 보이는 책상.  
의자 위엔 대통령의 상징 봉황 두 마리.

- 운동장. 밤

전화를 내려다보는 흑금성, 어느 새 농구를 하던 학생들마저 안 보이고 홀로 공원에 서 있다.

#### 40. 흑금성의 숙소. 밤

금고 앞의 흑금성 핸드폰이 울린다. 받으면

리철 (E)

박 선생님- 식사나 하실까요?

흑금성

(화통하게) 좋죠, 냉면만 아니면.

리철 (E)

캠핀스키 호텔을 아십니까?

통화하며 금고에서 소형 도청기를 꺼내는 흑금성.

#### 41. 캠핀스키 호텔 / 별실. 저녁

레스토랑 내부를 가로지르는 흑금성, 별실 앞에 섰던 직원이 문을 열어준다.  
들어서면 기다리고 앉은 리철, 김명수, 정과장.  
정과장, 문 옆에 섰던 요원들에게 턱짓한다. 흑금성 앞을 막는 요원들.

리철

정과장, 어허-

정과장

처장 동무, 공화국의 보위를 위한 일입니다.

리철

거 참... 죄송합니다 박선생, 약침 맞는다 생각하고 한번만 더 따끔해 주시지요.

보던 흑금성, 할 수 없이 팔을 든다. 몸을 수색하는 요원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찾아 내려가는 요원들의 손.

아무 것도 없다. 길을 비켜주는 요원들.

리철

박선생은 돈 앞에 한 없이 순수한 분이라 일렀거늘... 이리 앉으시지요.

흑금성

(기분 나쁜 얼굴) 이제부턴 제~발 순수하게 돈 이야기만 했으면 합니다.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에 앉는 흑금성.

(CUT TO)

얼큰히 취한 사람들, 혼자 멀쩡한 흑금성.

리철

박선생은 캠핀스키 호텔이 처음이겠지만. 여기가 참 훌륭합니다. 독일인들이 지어 튼튼하고 벽도 두껍고... 내밀한 대화를 나누기엔 최적이지요.

흑금성

(고개 끄덕이며) 아 그래요? 이야 그나저나 중국 공산당이 독일 자본에 호텔 승인을 해준 것도 그렇고... 이곳에서 물과 기름 같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이는 것을 보면, 세상 참 신기해요... 그죠?

리철

물과 기름이요? 박선생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길래 그리 말씀하시오.

흑금성

거야 시장 경제를 허용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리철

하하하- 뭘 그리 복잡하게 가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돈을 벌라는 게 자본주의고. 가난한 사람에게 왜 가난해졌는지 묻는 게 공산주의요.

흑금성

(혀를 차며) 내 처장님의 식견에는 쪽 감복을 해왔지만... 이 유독 경제 쪽 만큼은 좀 아쉽습니다.

김명수

(기분 나쁘다) 이보시오 박선생... 처장 동무는...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요. 예의를 갖추시오.

흑금성

(슬슬 약 올린다)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공부해서 북한이 그리 어려워 진 겁니까?

정과장

(벌떡 일어서며) 두려움을 맛봐야 겸손하겠소?!

순간 험악해진 분위기. 리철, 꺾꺾꺾- 웃더니.

리철

정과장, 우리가 그래서 박선생을 만나기로 한 거 아니요. 같은 배를 탄 마당에 두려움 같은 뽀족한 발언은 뱃바닥에 구멍을 낼 수 있음을 왜 모르시오. 다 같이 침몰하자는 거요?

환기하려는 듯 박수를 짹- 치는 리철.

리철

박선생이 맞는 말씀한거요. 활용에 대해선 살며 경험하신 분이니, 많이 배우겠습니다. (술잔 내밀며) 아 참 안 드시는 걸 깜박했소. 이럴 때 짹- 하면 동포애가 솟을 텐데 말입니다.

소리 내 웃으며 술을 들이키는 리철. 흑금성, 일어서며

흑금성

결례를 범한 것 같아 얼굴이 화끈 거리는 게, 찬바람 좀 맞으며 진정시켜야겠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하고 흑금성이 나가자 조용해지는 실내, 술을 들이킨 리철의 얼굴이 예전 그 차가운 얼굴이 된다. 담뱃불을 붙이는 리철의 눈치를 살피는 정과장과 김명수.

리철

정과장 동무 돈 안 벌어요? (담배 끄며) 박선생 오시면 인사드리고. 나가라우.

## 42. 캠핀스키 호텔. 밤

- 화장실. 밤

변기 뚜껑을 여는 흑금성, 비닐로 밀봉된 물건을 꺼낸다.

안에 든 소형 녹음기 두 개, 열어서 테이프를 확인한다.

겉에 쓰인 녹음시간 '60min'

빈 녹음기를 플레이시켰다가 스탑 버튼을 누르는 흑금성.

딱- 작은 소리를 내며 튀어 나오는 버튼.

양쪽 양말 속에 녹음기들을 넣고, 양말 윗부분을 끈으로 동여맨다.

바지를 내려 덮는 흑금성, 양말 쪽으로 손을 뻗어 버튼을 누른다.

손목시계를 보는 흑금성. 8시 10분.

흑금성

9시 10분...

- 로비. 밤

화장실에서 나오는 흑금성을 멀리서 지켜보는 북한 요원, 흑금성이 로비 데스크까지 가는 걸 주시한다. 흑금성, 요원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지만 보란 듯 두리번거리며 눈에 띄게 행동한다. 무전기를 드는 북한 요원.

- 별실 내부. 밤

불쾌한 얼굴로 앉은 정과장,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조용히 무전을 받는다.

- 로비 데스크, 밤

데스크를 지키는 독일인 금발 청년 직원, 흑금성이 다가가면 아는 척을 하는데, 흑금성이 달려 몇 장을 쥐어주자 보관했던 작은 쇼핑백을 건네준다. 받아들고 돌아서서 역시나 두리번대는 흑금성.

#### 43. 캠프스키 / 별실 앞. 밤

별실 앞으로 가는 흑금성, 기다리고 선 정과장.  
옆에서 나오는 요원들, 흑금성의 길을 막는다.

정과장

(의심의 눈초리) 바람을 오래 맞으셨습니까?

하며 턱짓을 하면, 흑금성을 붙들려는 요원들, 뒤로 물러서는 흑금성.

흑금성

(짜증내며) 정과장님... 처장님 얘기 못 들었어요?? 한 두 번도 아니고! 아니 같은 배를 탔는데 언제까지 몸만 더듬을 거예요? 진짜 화날라 그러네...

정과장

(단호한 얼굴) 외화 별이는 처장 동무 일이고, 공화국 수호는 내 일ियो. 수색 해.

결국 흑금성을 붙잡아 내는 요원들, 한 명은 손에 든 쇼핑백을 뺏고 열어 본다.  
몸을 위에서부터 수색해 나가는 요원 1. 복부를 지나 내려가는 손.  
그리고 쇼핑백, 선물 상자 포장지를 거칠게 뜯는 요원 2.  
흑금성을 수색하는 요원 1의 손이 발목 직전까지 오는 찰나!!!  
벌컥- 열리는 별실 문에서 리철이 나온다.  
리철의 화난 얼굴을 보고는 놀라 흑금성에게서 떨어지는 요원들.  
포장지를 벗겨냈던 요원 2도, 상자를 바닥에 두고 물러선다.  
시계 케이스- 안에 자리 잡은 채 반짝이는 금색 롤렉스.  
상황을 파악하는 리철의 차가운 눈.

정과장

... 처장 동무. 저는 단지...



리철

알고 있소. 정과장은 정과장 일을 하려는 걸. 그럼에도 문제가 뭔지 아시오? 박선생을 당의 손님으로 정중히 모시라는 내 명령을 어긴 것이오... 가시오.

머뭇대던 정과장, 요원들을 데리고 떠난다.

뒤에서 눈치 살피던 김명수, 바닥에 떨어진 롤렉스 상자를 집어 든다.

김명수

아니 이걸... 롤렉스 아닙니까! 반짝 거리는 것이 어찌 누추한 바닥에! (쇼핑백에 든 박스 두 개 발견하고) 박선생... 세 개나 준비한 겁니까?!

흑금성

(한 숨 쉬며) 정과장님 거 까지 챙겨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정말 몰랐냐고 문듯 묘하게 웃으며 보는 리철.

흑금성

(머리를 굽적이며) 아 정말 힘드네요. 정과장님 없다고 시계를 도로 가져갈 수도 없고. 주인 잃은 시계를 이기 어찌해야 되나.

그러자 껄껄- 웃는 리철.

리철

우리가 당이고 당이 우리입니다. 당에 보내는 것이 정과장 동무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곤란할 것 없으십니다. 들어가시지요-

먼저 들어가는 리철, 보는 흑금성.

#### 44. 캠프스키 - 별실. 밤

테이블 위에 더 쌓인 빈 술병들, 생각에 빠진 리철.

리철

박선생, 담배고 자동차고... 중국이나 일본 물건을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달아서 다시 내보내는 건... 동북3성 조선  
족 화교들이 쥐고 있소. 따로 선을 내주는 건 무리일 뿐더  
러, 이윤이 크지도 않소.

손목시계를 풀어 옆에 놓으며 일어서는 흑금성, 자연스레 시계를 힐끗 본다. 시계  
바늘이 9시 10분을 거의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술병을 잡는 흑금성, 리철 잔에 술  
을 따라준다. 분할화면으로 보이는 흑금성 발목의 소형 녹음기 - 녹음하며 돌아가  
는 테잎의 모습 - 의 모습.

흑금성

그럼 따로 생각하신 물품이 있으신 겁니까?

시계를 본 흑금성, 술병을 내려놓는 척 하며 그릇 끝을 내려친다.  
끝이 들렸다 떨어지며 덜덜덜- 소리 내며 떨어지는 그릇.  
계속 돌아가는 테잎, 덜덜덜- 미세하게 작아지는 그릇 소리.  
순간, 시계 침이 9시 10분을 가리키자 딱- 소리와 함께 녹음 버튼이 튀어 오르는  
데 그와 동시에 그릇을 붙잡는 흑금성, 다리를 반대로 꼬고는 반대쪽 발목 녹음기  
버튼을 슬쩍 누른다. 대수롭지 않게 보던 리철, 말을 잇는다.

리철

박선생이, 역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흑금성

(생각하다) 한국 기업들을 북한에 중개하겠다는 애입니까?

리철

말하자면 그런거요.

흑금성

뭐... 북한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한국기업이야 썬고썬썬...

리철

대기업은 안 되오.

흑금성

네?

리철

친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의지시요...

흑금성

대기업이 안 되면...

리철

그래서 박선생의 역할이 필요하오. 말씀하셨다시피 활용법은 박선생이 수십 년간, 체제를 통해 체험하지 않았소. 좋은 제안만 주시면, 박선생께 독점적으로 길을 열어 드리겠소.

다시 술잔 들이키는 리철, 생각에 빠지는 흑금성.

#### 45. 캠퍼스키 호텔 앞. 밤

흑금성, 리철, 김명수가 호텔 정문에서 함께 나오는데... 호텔에 들어가는 한 남자 - #26 사진 속 장박사 - 가 김명수와 마주치고 악수를 나눈다. 고개를 숙여 보이고 멀찍한 곳으로 가는 둘. 보는 흑금성, 그리고 저기 앞 베이징의 야경을 보는 리철.

리철

장쩌민 이후 이곳을 들락거린 지 2년이 됐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달라졌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속도전을 하듯 하늘로 치솟아대고.

흑금성

개혁 개방의 힘 아니겠습니까.

대답 않고 야경을 보는 리철, 심경을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얼굴이다. 곧 장박사와 헤어진 김명수가 합류하고 대기하던 낡은 자동차가 일행 앞에 멈춰 선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차에 타려던 리철, 흑금성에게 낮은 목소리로...

리철

그리고... (조심스럽다) 아까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물품 리스트는... 최대한 조용히...

흑금성

(생각난다는 듯) 아아... 걱정 마십시오. 은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이) 들어가세요.

리철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 차에 탑승하자 출발하는 자동차.  
보던 흑금성, 차가 멀어지자 호텔로 다시 들어가려한다.  
그때 떡- 흑금성의 발목에서 들려오는 녹음기 멈추는 소리.

#### 46. 서울 / 순댓국집. 저녁

순댓국을 먹고 있는 권부장 맞은편에 앉아 파일을 넘겨보는 흑금성.

권부장

대기업 거대 자본이 북한을 잠식할까 겁내는 거야... 사실상 자신들 체제의 부실함을 인정하는 거지.

흑금성

그래서... 이 아이템을 고르신 겁니까?

권부장

북한 쪽도 부담 없을 거고, 우리로서도 예상 보다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거네.

흑금성

북한에 들어가 광고 촬영을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권부장

자네가,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생각해보게, 촬영팀을 이끌고 북한 땅을 둘러볼 수 있다면... 중국엔...

흑금성

숨겨진 핵시설까지... 알아 낼 수 있다.

권부장

우리도 적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 47. 순댓국집 뒷골목. 밤

뒷문을 닫고 나오는 권부장, 흑금성에게.

권부장

그런데 말이야 테이블에서... 리철이 부탁한 것들은 대체 뭔  
가?

흑금성, 지갑에서 종이를 꺼내 준다.

흑금성

모두... 약들입니다.

권부장

(미간 찌푸리며) 뭐야 이게... 끝에 이건...

아무 대꾸 없이 고개 끄덕이는 흑금성.

권부장

이런 기본적인 의약품도 못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정신병자들... 자네가 더 노력해줘야겠네. 하  
루 빨리 주식궁에 탱크 부대를 몰고 갈 수 있게 말이야.

흑금성

... 명심하겠습니다.

권부장이 리스트를 돌려주고 먼저 가면 흑금성 파일을 열어 사진을 보는데, 사진  
속 남자는 #6에서 등장한 옆집 남자 한창주다.

#### 48. 광고회사 몽타쥬

- 커피숍. 낮

혼자 앉아 신문을 보는 흑금성, 신문 전체를 차지한 기사 타이틀은...

‘제1회 지방선거. 여권 참패, 민주당 대약진’

그 위로 자막 ‘1995년 6월’

신문을 슬쩍 내리는 흑금성, 멀리 구석 자리에 홀로 앉아 어딘가를 쳐다본다.  
관계자들을 앉혀 놓고 열변을 토하는 창주, 그의 손에 들린 각 종 광고 시안들.  
잠시 후, 관계자들이 먼저 나가자 창주, 힘 빠진 채 시안들을 챙겨 커피숍을 나간  
다. 시간차를 뒀다가 일어서서 나가는 흑금성.

- 강남부동산. 낮

문을 열고 들어오는 흑금성, 여사장에게...

흑금성

사장님, 저기... 잠원동 한신 5차, 매물 나온 거 있나요?

- 흑금성의 집 앞. 밤

용달차량에서 이삿짐을 내리는 인부들, 보는 흑금성.

- 복도. 낮

아파트 복도 위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창주를 내려다보고 있는 흑금성.

- 유치원 앞. 낮

딸 민정을 데리러 왔다가 창주와 마주치는 흑금성.

흑금성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아직 친분이 덜 쌓인 듯 어색하게 인사 받는 창주.

- 흑금성의 집 거실. 밤

흑금성, 창주에게 술을 따라 주며

흑금성

(고심하다가) 사실, 제가... 3사 출신이거든요... 2년 전에  
정보사에 있다가 예편하고... 그 때 인맥으로 북한 쪽에 선  
이 좀 닿아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하며 술병을 상 위에 탁- 놓는 흑금성.

창주

(고개를 끄덕) 아... 군인이셨구나... 몰랐네...

- 흑금성의 집, 서재. 밤

각종 사업 계획서, 광고 시안들이 펼쳐진 책상.  
훑어보는 흑금성, 한숨 쉬는 창주.

창주

처음엔 진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북한 핵이다 미사일이  
다... 분위기가 하도 안 좋아지니깐... 나와서 혼자라도 풀  
어 볼려고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북한이  
랑 선만 닿으면 초대박 날 컨셉이거든요...

짐짓 심각한 척, 꼬덕이는 흑금성.

창주(V.O)

사장님... 저희 동업 한 번 해볼까요??

- 한강 고수부지. 낮

말들을 산책시키며 대화 나누는 흑금성과 창주.

흑금성

(건성으로) 저야 뭐 시켜주시면 고맙죠...

창주

아니 이게 사장님이 진짜 제대로 된 줄만 소개시켜 주시  
면... (간절하다) 사장님... 우리 딱 정확하게 5:5로 해서...  
동업한 번 해봅시다...

- 사무실. 낮

흑금성(V.O)

전 4만 주세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다 기획하신 거에 전  
순가락만 얻는 건데...

사무실 가구 세팅으로 분주한 사무실, 흑금성이 결제서류를 가지고 창주에게 다가  
간다. 벽 한쪽에 커다랗게 붙어 있는 상호.

‘(주) 아자 커뮤니케이션’

-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함. 낮

창주가 분리수거하고 있는 흑금성을 쳐다보다.

창주

박 전무님... 죄송한데 저 박 전무님 지분... 3으로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들어간 돈이 많아서...

#### 49. 기사식당 내부. 낮

냉장고 위에 올려진 낡은 티브이, 뉴스 보도가 이어진다.

앵커 (E)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가 지방선거의 돌풍을 6월 총선거  
지 잇겠다는 의지를 내보이자, 여당은 총선에서 국민회의  
바람을 반드시 잠재우겠다 각오로 당 정비를 시작했습니  
다.

밥을 먹으면서 티브이를 보는 손님들, 그 중 흑금성과 창주.  
티브이 화면에 보이는 김대중, 정계 복귀 선언을 하는 자료화면 등.

창주

전무님, 어느 쪽이 우리 사업에 더 도움 될까요?

흑금성

(웃음) 글쎄요... 저도 정치는 잘 몰라서... (사이) 일단 다  
음주 베이징 피터부터 따내고 고민해 보시죠.

창주

아, 그러네요. 승인도 안 받아놓고 김칫국부터 마셨네요.

멋쩍게 웃으며 밥 먹는 창주, 그런 창주를 한참 보다 티브이로 다시 눈 돌리는  
흑금성.

#### 50. 베이징 / 경제위 사무실. 낮

흑금성과 리철이 소파에 단 둘이 마주 앉아 있다.  
사업 계획서를 넘겨보는 리철, 긴장한 채 보는 흑금성.  
계획서를 덮는 리철, 천장을 보며 생각에 빠진다.



흑금성

물품 판매 없이, 촬영지 대여만으로 북쪽에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완전 땡큐죠.

리철

그야, 이곳 오가시며 여러 번 설명해주신 거고... (사이) 좋은 사업인건 분명한데...

흑금성

(조심스레) 당에선 계속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리철

아무래도 이걸 들고 평양을 다녀와야겠습니다. 전투적으로 달려들어 사흘 안에 결단내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흑금성

어휴... 당연하죠. 9개월을 기다렸는데 그깟 사흘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흑금성이 옆에 뒀던 가방을 리철에게 건넨다. 리철이 가방을 받아 열어보면 가방 안에 한 가득 든 약들.

흑금성

어떻게... 그세 차도는 좀 있으셨습니까? (항문 쪽에 손을 대며) 아~ 이 치질이란 게 정말 한 번 걸리면 지독하거든요...

리철

(민망하다) 박선생 덕분에 몸 구석구석이 다 건강해졌습니다. 곧 소식 전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두 사람. 손 내미는 리철, 맞잡는 흑금성.

## 51. 캠퍼스키 호텔 / 객실. 밤

묵음으로 틀어진 중국 TV 방송, 한국 정치 상황을 소개하는 듯... 김대중, 이회창 후보의 얼굴이 지나간다. 책상에 앉은 흑금성, 다이어리에 글을 써 내려간다.

흑금성 (v.o)

리철이 평양으로 떠난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 광고 사업이 거절당한다면, 북에 침투하려던 계획도 모두 무산 될 것이다.

떠리리- 핸드폰이 울린다. 급하게 받아드는 흑금성, 그런데 곧 김빠진 듯

흑금성

네~ 한사장님. 예... 예... 시간이 더 걸리나보네요. 어휴 너무 걱정마세요. 리 처장이 잘 처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이) 많이 화세요.

밝은 목소리로 안심시키고 전화 끊은 흑금성, 다시 다이어리를 쓴다.

흑금성 (v.o)

서울과도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고 있다. 이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 같다. (사이) 그래서인지, 설명하기 힘든 낯선 기분이 든다. 평양과 서울이, 이곳 베이징과 상관없이 따로 움직인다는 기분이.

회색 휴대폰을 들어 확인해보는 흑금성, 발신창에 찍 이어진 숫자 '0'들. 흑금성, 발신버튼을 누른다. 송신음이 길게 이어진다.

## 52. 서울 / 연구소 내부. 밤

벽면 가득 장서들이 꽂힌 연구실, 소장 자리에 앉은 40대 젊은 남자, 김소장. 그 앞에 잔뜩 긴장한 채 서 있는 권부장, 처음 보는 모습이다.

김소장

부장님... 역할을 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총선이 코 앞인데, 왜 김대중이 인기가 자꾸 올라가죠? 이유가 뭐죠??

떠리리- 권부장 핸드폰이 울리자 인상 찌푸리는 김소장. 수신 거부하는 권부장.

권부장

국내 파트로 국민회의 쪽 움직임을 주시하고 하지만... 현재는 김대중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바람을 타는 시점이라...

김소장

(벌떡 일어서며) 바람요? 이게 바람 같아요?! 난 국민들이 바람을 타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에게 최면이 걸린 것 같은데?

권부장

소장님의 김대중에 대한 평가와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은 저와 다르지 않기에. 지금 말씀,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깊이 공감을 합니다...

김소장

그럼! 국민들이 최면에 걸리면! (가슴팍을 내려치며 단호하게) 깨어나라고 안기부가 귀싸대기라도 갈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버럭) 그게 국민을 위한 길 아니냐고요!

권부장

소장님. (역시나 단호하게) 안기부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 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시면...

김소장

총선 지고, 국민들이 계속 최면에 걸려서 내년 대선까지 지면... 부장님이 그 때도 계속 부장일까요? 아닐까요?!

권부장

(순간 놀라) ...!

김소장

대한민국 이전에 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장님도 있는거라고요. 이 간단한 걸 몰라요? (앉으며) 심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중이를 지지하는 이 혼란한 정국, 당장 정리하세요...

위기감이 서리는 권부장의 얼굴.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한 권부장이 안가로 들어온다. 이어폰으로 카세트테이프 들으며 타이핑하는 이실장의 이어폰을 잡아 당겨 빼버리는 권부장, 놀라는 이실장.

권부장

베이징에 믿을 만한 사람 누구 있어?

이실장

... 흑금성 있지 않습니까?

권부장

(생각하다) 자네, 내일 아침 베이징에 다녀오게. 가서...

(사이) 장박사 좀 만나.

뭔 소린가 싶어 쳐다보는 이실장.

#### 54. 베이징 / 건물 내부. 밤

어느 건물로 들어서는 흑금성,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만 엘리베이터는 3층에 머문 채 내려오지 않는다. 단념하는 흑금성,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잠시 후, 멍-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온다. 발걸음을 멈추는 흑금성, 발걸음 소리를 줄여 몇 계단 내려가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남자, 장박사가 보인다. 날카로운 눈으로 장박사의 뒷모습을 훑쳐보는 흑금성.

- 건물 3층. 밤

복도를 걷다 어느 사무실 앞에 멈춘 흑금성, 문에 걸린 익숙한 팻말 'DPRK- 대외 경제위원회'. 노크한 뒤 바로 문을 여는 흑금성.

- 경제위 사무실. 밤

테이블을 치우던 김명수가 흑금성을 보고는 깜짝 놀란다. 들어서던 흑금성, 순간 테이블 위 커피잔 두 개를 본다.

흑금성

(태연하게) 평양에선 소식 없었죠?

김명수

...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흑금성

네, 그럼 들어오는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많이 파세요.

## 55. 흑금성의 방. 새벽

일기장을 펼쳐 놓고 생각에 빠진 흑금성, 의혹이 가득한 얼굴로 일기를 쓴다.

흑금성(V.O)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 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장박사는 왜 베이징에 있을까... 왜 북한 측은 장박사를 만난 것일까...

그 때 띠링-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흑금성, 문자 수신 확인하면...

‘회사 전체 공지 : 15분전, 바이어가 5-1 지점 계약을 일방적 파기 통보. 계약 규모 150억. 총 손실 현재 정산 중.’

흑금성, 급히 금고를 열고 암호 표를 꺼낸다. 문자와 암호 표를 오가며 메모하던 흑금성, 이게 뭔가 싶어 메모를 읽어 본다.

흑금성

... 판문점, 북한군 150명... 무력도발...?!

## 56. 판문점 일대. 새벽

- 판문점 북쪽. 새벽

판문점 바로 옆 서쪽 구릉, 원형 진지를 파는 북한군 병사들.

이어서 박격포와 기관총을 설치한다.

총 150-200여명 규모의 북한군, 결전에 임하듯 빠르게 움직인다.

자막 ‘1996년 4월, 북한 판문점 무력 도발 ’

- 판문점 남쪽. 새벽

이이잉- 비상 사이렌 관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급히 무장하는 병사들의 모습.

소대장

이것은 실제상황이다. 테프콘 3 상황이다. 테프콘 3 상황이다. 신속히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라.

관문점 초소와 경계지역에 깔리는 한국군, 북한군의 움직임이 또렷이 보인다. 소총을 관문점 북쪽으로 겨냥하는 한국군. 북한군이 진지 뒤 국기 게양대로 북한 인공기를 올리는 게 보인다. 계속해서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

## 57. 흑금성의 방 / 연구소. 밤

- 흑금성 방. 밤

회색 전화기를 들고 서성대는 흑금성, 송신음을 한참 기다리면 딸각- 받는 상대방, 권부장.

흑금성

부장님, 오늘 새벽 관문점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연구소 복도. 밤

불꺼진 복도, 조용히 이야기하는 권부장.

권부장

뭐겠나. 빨갱이 새끼들이 또 다시 발작한거지.

흑금성

그런데 왜, 같은 시각 안기부 전체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까?

권부장

그건... 정보사 쪽이랑 혼선이 있었는지...

흑금성

네? 제가 정보사에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권부장

조사 중이니깐, 자넨 평양건이나 잘 마무리 짓게. 왜 아직도 소식이 없나.

흑금성

... 저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여쭙는 겁니다. 혹시 이번 사태로 평양 건도 뒤틀어질까봐...

권부장

구국의 신념으로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게.

혼란스러운 흑금성.

- 복도. 밤

전화 끊은 권부장, '소장실'이라 쓰인 방으로 들어간다.

- 연구소장실. 밤

소파에 앉아 티브이를 보고 앉은 김소장, 총선에 대한 뉴스.  
체육관 개표 현장, 전국지도 위 판세 현황 등의 자료들.

개표 방송 진행자 (E)

주목할 점은 여당인 신한국당이 서울에서 27개 지역을 차지하며 대약진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득표율이 저조해 국회의원 김대중 총재가 전국구 당선에 실패한 점도 주목해야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선거막판,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가 국민들의 안보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권부장, 양주를 따라주는 김소장.  
공손히 받는 권부장.

김소장

권 부장, 고생했어... 일 잘하네...

- 흑금성 방. 밤

총기를 손질하며 티브이를 응시하는 흑금성,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한 중국방송 화면들이다. 이회창, 김대중의 얼굴들도 스쳐지나가고. 마지막으로 김영삼의 얼굴.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하는 흑금성의 날카로운 눈.

## 58. 북한식당 고려관. 오후

고려관에 마주 앉은 흑금성, 살짝 긴장한 김명수의 얼굴.

김명수

글쎄요, 북경에서 혼자 사무실 지키는 늙은이한테 관문점 소식까지 나눠주진 않아서... 뭐, 명령 체계에서 혼선이 생긴 우발적 사태 아니겠습니까?

흑금성

(웃으며) 뭐 그런 거겠죠. 사실 저도 별 관심은 없는데, 혹시 우리 사업에 불똥 튈까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이거...

하며 플레이보이 잡지를 김명수에게 건네는 흑금성, 놀라는 김명수.

김명수

아 뭘 또 이런 걸 (잡지를 펼쳐보다 눈이 커진다) 저도 그 점을 심도 깊게 우려중이긴 합니다만...

그 때 울리는 핸드폰. 받으면 리철의 목소리.

리철 (E)

박선생, 평양입니다.

흑금성

처장님!

리철 (E)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흑금성

어떻게 됐어요?? 혹시 당에서 거절 한 겁니까?

리철 (E)

그게... (사이) 박선생, 평양으로 와주셔야겠소.



흑금성

(놀라며) 네?!

리철 (E)

장군님께서, 박선생을 뵙고 싶어 하시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상기되는 흑금성!!!

## 59. 비행기 안 / 북한 곳곳. 낮

고려항공 구형 쌍엽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활주로를 날아 올라간다.

- 기내. 낮

주위를 둘러보는 흑금성, 찌엄찌엄 앉은 승객들, 그 중 간간이 보이는 북한 장교복의 남녀들. 창밖을 보면, 날개에 달린 프로펠러가 낡아 보인다.

- 비행장. 낮

비행기가 순안비행장에 착륙하자 승객들이 하차하기 시작한다. 뒤늦게 탑승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흑금성, 계단 끝에 기다리고 선 인민군 장교들을 쳐다본다.

장교

박채서 선생이지요?

다른 장교, 한쪽을 향해 손을 흔들면... 쏜살 같이 달려오는 검은 승용차.

철컱- 장교가 문을 열어주면 차량 위로 올라타는 흑금성.

- 차량 내부. 밤

창문에 커튼이 드리워진 실내, 보이는 건 운전석 쪽 앞 광경뿐이다.

텅텅 빈 도로를 보곤 커튼을 부여잡는 흑금성, 두려움에 지그시 눈을 감는다.

- 모란봉 초대소 앞. 밤

승용차가 멈춰 서면 차에서 내리는 흑금성이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이, 꽃다발을 든 초대소 여직원 - 이하 안내원 - 이 환한 미소와 함께 다가온다.

안내원

우리 당의 동지, 박채서 선생, 환영합니다.

흑금성

...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받아 드는 흑금성.

장교

박 선생... 숙소에서 편히 쉬고 계시오. 수일 내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 60. 모란봉 초대소. 아침 + 밤

- 초대소 객실. 밤

오래된 비지니스 호텔을 연상시키는 객실 내부, 안내원을 따라 흑금성이 객실로 들어온다. 흑금성이 짐을 내려놓고 풀고 있는데도 나갈 생각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는 안내원. 뭔가 싶어 쳐다보는 흑금성.

안내원

당에서 박 선생과 동숙하며 정중히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뭔 소리가 싶어 빨리 쳐다보는 흑금성, 그러다 이내 정색하며.

흑금성

(손사래를 치며)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 정말 괜찮습니다.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요...

(CUT TO)

오랜 시간이 흐른 듯 꽃병에 꽂아 둔 꽃다발이 많이 시들어 보인다. 아침햇살을 맞으며 창밖을 내다보는 흑금성... 그의 시야로는 대동강, 그 너머 일부 건물들만 보일 뿐, 사람하나 보이지 않는다.

- 식당. 아침

넓은 식당 한 가운데 흑금성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베이컨, 빵, 콩 등의 서양식 아침 식사.  
저기 끝, 유일한 다른 손님. 서양인 남자 둘.  
뭔가 긴밀히 이야기하며 식사를 하는데,  
흑금성과 그들 사이, 미소 지은 안내소 남자 직원이 지키듯 서 있다.

- 복도. 밤

걸어가던 흑금성, 맞은편에서 오는 안내원과 마주친다.  
환하게 웃으며 고개 숙이는 안내원.

흑금성

저... 혹시 리철 처장님에게서 연락 없었습니까?

안내원

당의 부름이 있으면 선생께서 바로 알아채실 겁니다. 뭐 필요  
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가는 안내원.

- 객실. 밤

객실에 들어오는 흑금성, 밖에서 들리는 에에엥- 사이렌 소리.  
창밖을 보는 흑금성, 사이렌은 요란해도 보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꺼졌다 켜졌다 깜박거리는 천장 등.  
올려다보는 흑금성, 반복되던 점멸, 결국엔 틱- 나가버리는 전등.

(CUT TO)

조용한 새벽, 선잠을 자는지 뒤척이는 흑금성, 푹푹!! 큰 노크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킨다. 반사적으로 침대 밑에 숨겨둔 젓가락 하나를 꺼내어 드는 흑금성,  
문이 열리는 소리에 긴장하는데... 보면 장교복을 입은 사내들이 떡하고 서 있다.

장교

나오시오, 박선생... 당의 호출이요.

- 초대소 앞. 새벽

장교들과 초대소를 나서는 흑금성, 대기한 지프차를 본다.

절도있게 차문을 열어주는 인민군.

- 지프 내부. 새벽

흑금성 옆에 앉은 장교, 눈가리개를 내민다.

흑금성

... 실례지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장교

... 그런 건 알아서 뭐함네까.

하며 눈가리개를 더 내밀면 받아드는 흑금성, 스스로 눈을 가린다.

앞이 캄캄해진 흑금성, 차가 출발하는 것을 느낀다.

## 61. 평양 외곽. 아침

- 선착장. 새벽

지프가 멈추면 눈이 가려진 채 장교에게 이끌려 내리는 흑금성, 어딘지도 모르고 선착장에 묶인 보트 위에 올려 태워진다. 올라타다 몸이 흔들리는 흑금성, 본능적으로 발을 보트 바닥에 내딛는데... 그 모습에 장교들이 꺾꺾대며 웃더니 이내 보트를 출발 시킨다.

- 별장 앞. 새벽

장교들이 눈가리개를 풀어주자 흑금성이 눈을 떠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다.

잠시 눈을 못 뜨던 흑금성, 점점 앞의 시야가 확보되기 시작하는데...

보면 2층 석조 건물을 100여명의 북한군이 무장한 채 둘러싸고 있다.

곧 정면에 있던 출입구가 열리더니 낮익은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리철이다. 진심으로 그가 반가운 흑금성.

흑금성

(기쁨 반 안도 반) 리처장님!

하지만 평소의 실실대는 모습이 아닌, 리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만다.

## 62. 별장 내부. 아침

100평 넓이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대형 응접실, 벽에 칠한 페인트부터 가구들까지 모두 하얀색. 그 가운데, 흰 테이블 의자에 앉은 흑금성과 리철.

흑금성, 공간의 위압감에 또 평소와 다른 리철의 모습에 말을 걸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얼마 있지 않아 커다란 양문 출입구 한쪽이 열리고는 군인들이 뛰어 들어온다. 순간 일어서려는 흑금성의 팔을 잡고 앉혀주는 리철, 아직 아니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한 번 젓는다.

흰 장갑을 낀 군인들, 의자와 식탁에 스프레이를 뿌려대며 소독을 하고 장교 한명이 흑금성과 리철 앞으로 다가와 흰 쟁반을 내민다. 익숙한 듯 손목시계, 반지, 안경까지 벗어 올려놓는 리철. 눈치껏 따라하던 흑금성, 리철의 손목시계를 보게 되는데 그 시계는 다름 아닌 자신이 준 짝퉁 롤렉스다.

금속류를 모두 내놓자 다른 장교가 다가와 또 다른 쟁반을 내미는데... 쟁반 위 작은 비닐포장 두 개를 보면, 영어가 잔뜩 쓰인 소독휴지다. 아래에 보이는 글씨 'made in USA' 리철을 따라 비닐을 찢어 소독휴지로 손을 닦는 흑금성.

### 리철

(낮은 목소리로) 장군님을 뵈 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상의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시오. 무엇보다, 장군님 말씀들을 절대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한바탕 소란 뒤 나가는 장교들, 그러자 곧 들어오는 대좌급 장교.

### 대좌

(단호하고 절도있는) 장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고개 숙인 흑금성의 귀로 뚜벅- 뚜벅-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가까워진다. 흑금성 눈으로 힐끔 보는데 문으로 먼저 들어오는 건, 김정일이 아닌 하얀 말티즈 강아지다. 이게 뭔가 싶어 말티즈를 쳐다보는 흑금성, 당황하는데... 구두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바로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아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위원장, 김정일이 자신의 앞으로 다가온다.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키높이 구두의 주인공 김정일, 흑금성에게 악수를 청한다.

김정일

(손을 내밀며) 반갑소 박선생.

흑금성

(꾸벅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내밀며) 반갑습니다.

김정일, 상석으로 가서 앉는다. 흑금성과 리철도 앉으면.

김정일

자세한 설명은 듣지 않았소. 박선생을 직접 뵙고 듣는 게 낫겠다 싶어 초대를 한 것인데... 내 한 가지 사실은, 리철 처장에게 전해 듣고 생각을 해봤소만...

흑금성

네.

김정일

남조선의 김용덕 의원과 텔런트 안수진이... 그것이 사실이오?

흑금성

네?! 아... 몇 년 전까지는... 파악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김정일

거 참, 의원식이나 해먹는 자가 도덕심이 부족해서...

문 열리고, 미모가 뛰어난 여장교들이음식을 들고 와 테이블에 놓는다.

흡족하게 웃는 김정일.

마지막으로 놓이는 술을 직접 따서 흑금성에게 내미는 김정일.

김정일

박선생, 술을 안 드신다고 하더만?

흑금성

... ..

김정일

... 진짜 안 드실려나.

흑금성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통일이 되어 평양에서 마시기  
전까진, 술을 끊겠다고.

하며 술잔 내미는 흑금성. 웃음 터트리며 김정일, 흡족한 얼굴로 술을 따라준다.

김정일

거 참 멋진 사나이 다짐이요. 나도 한 잔 주시겠소?

흑금성, 김정일에게 술을 따라 준다. 들이킨 김정일,

김정일

그럼 보자... 공화국 곳곳을 염탐하겠다고 했소?

흑금성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대한 서로 협의 하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김정일

허허허... 박선생의 호연지기도 내 대범함엔 승부가 안 되  
는구먼. 허허허-

그런 김정일의 모습에 뭔가 캐치한 듯 한 흑금성.

흑금성

물론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위원장님, 저희가 제안 드린 사  
업에 대해서도 대범한 말씀을 던져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살짝 경계를 넘는 듯 한 흑금성의 태도에 놀라 눈치 살피는 리철.  
그런데 흑금성 말에 기분 좋아 보이는 김정일, 어깨에 힘을 주며

김정일

그래, 서로 대범하게 말해 봅시다. 그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를 줄 수 있소?

흑금성

계약금으로 미화 30만 불, 본 계약은 최소 200만 불 보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님의  
결단만 있다면...

김정일

맨날 하는 결단 뭐 어렵겠소. 말해보시오

흑금성

금액을 키우려면 한국 대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한국 대기업 상품을 북한 배경으로 찍는 겁니다.

표정 없어지는 김정일. 혼자 뛰어 놀던 말티즈가 김정일에게 온다.  
안아 들고 무릎에 두는 김정일.

김정일

계속 해보시오.

흑금성

그를 위해선, 방금 말씀드렸듯, 저희가 북한 지역에 대한 답  
사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역시 카메라  
로 담을 걸 허락하시면...

김정일

더 해보시오.

흑금성

그 영상도 상품이 되어 방송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판  
매금만 최소 60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매 2년 마다. 그렇  
게 광고료까지 포함 다섯 번이면 위원장님이 10년간 확보  
하는 미화는, 저희 아자 커뮤니케이션의 중개료를 떼더라  
도 1200만불 가량 되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확히는 1032만불 이겠구만.

흑금성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입니다.

김정일

(혼잣말하듯) 1032, 1032, 1032, 1032 ...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주저의 빛이 보이는 김정일.

흑금성

중요한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결  
정만 있다면, 한국민들은 향후 광고를 통해 북한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내심 위원장님의 대범하고도 역사적인 결단력에 혀를 내두르게 될 것입니다.

벌떡 일어서는 김정일, 따라 일어서는 흑금성과 리철.

김정일

리철 동무.

리철

... 네... 장군님...

김정일

도장 찍으시오.

리철

네? ... 네!

김정일

(손 내밀며) 이리 화통하고 뛰어난 식견을 가진 남쪽 호걸을 이제야 만났구료.

흑금성

(맞잡으며) 위원장님의 대범함에 감응한 것일 뿐입니다.

김정일

박선생, 공화국을 오고가다 보면 내가 보고 싶어질 것이요. 그 땐 주저 말고 달려오시오.

흑금성

감사합니다.

김정일, 맞잡은 손을 격하게 흔들어 댄다.

### 63. 평양 시내 / 차 안. 낮

평양 시내를 질주하는 의전 차량,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흑금성과 리철.

흑금성

(조심스레) 리처장님.

리철

네, 박선생...

흑금성

평양에 계실 때 혹시... 판문점 일에 대해 못 들으셨어요?

리철

잘못된 명령으로 일어난 우발적 사태라 들었소.

모범 답안을 말하는 느낌. 리철 스스로도 그걸 느꼈는지

리철

그게 아니라면 남북 합작이 가능했겠소? 단순 우발사고니  
광고 계약도 잘 진행된 거 아니겠소?

흑금성

당연한 말씀입니다. 혹시나 우려돼서 물어봤습니다.

리철

박선생은 광고 사업에만 집중하시면 무탈할거요.

#### 64. 리철의 집. 낮

명동- 하는 벨소리에 리철의 아들(12)이 문을 연다.

리철의 안내를 받으며 거실로 들어오는 흑금성.

리철

인사드리라우. (가리키며) 이쪽은 남조선의 박채서 선생.  
(가쪽을 가리키며) 여기는 내 아들내미하고 마누라요.

처음 보는 남한 사람의 모습의 약간 경계하는 리철의 아내와 아들.  
리철의 부인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건네는 흑금성.

흑금성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형수님. 미인이시네요. (아들에게)  
몇 살이야?? 잘생겼네. 엄마 닮았다.

흑금성, 리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1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려하는데 리철의 아들이 심히 당황스러워 하는 눈치이다. 아버지 리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지폐를 받는 아들.

(CUT TO)

리철의 가족과 식사를 하는 흑금성.

리철

이제 박선생이 남한 쪽에서 잘 진행해주시오.

흑금성

그렇다면 일종의 카탈로그가 필요한데... 흑시... (사이) 북한 영내를 좀 둘러 볼 수 있을까요?

리철

조속한 시일에, 가능케 해보겠소. 장군님께서 접견자에게 최대한 협조하라 지시하셨으니 큰 염려 마시오. (음식을 건네며) 이것 좀 드셔 보시오.

흑금성

... 접견자라니요?

리철

장군님을 직접 뵙고 술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오. 공화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사이) 그렇지, 박선생이 공화국 인민이었다면 아파트에 자동차까지...

흑금성

그건 이미 있는데.

리철

... 체제 자랑을 하는 거요? 좋소 이걸 들어 보시오. 접견자의 가장 큰 특권은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누군가, 동무를 죽이려면 반드시 장군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단 거요.

흑금성

(고개 끄덕인다) 접견자라는게, 딱히 특별한 건 아니군요.

리철

무슨 소리네. 그게 공화국에서 얼마나 큰 영예이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그리 접견하길 바랬지만 결국 실패했던, 어마어마한 일이지...

황당한 듯 허허- 거리는 흑금성.

## 65. 베이징 공항 / 귀빈 주차장. 오후

흑금성과 리철 앞에 승용차가 도착한다. 차에서 내리는 정과장, 리철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흑금성에게 다시 허리를 숙인다.

리철

바로 서울로 가시오?

흑금성

잠깐 불일 좀 보구 가려구요.

리철

그럼, 진행 상황 따라 연락주시요. 그리고 (작은 보자기 내밀며) 가져가시오.

흑금성이 풀어보면, 송이버섯 여섯 알.

리철

작년 겨울에 묻지 않았소. 안사람 몸이 차다고, 송이를 구해줄 수 있냐고.

흑금성

아니, 겨울 지나 봄 되고 이제 여름도 끝물인데...

리철

요새 송이가 하도 귀해,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흑금성, 리철이 정성들여 구했음을 알고,

흑금성

감사합니다.

리철

감사하긴요. 이렇게, 엉덩이를 뒤척이지 않고 편히 앉아 있는 게 박선생 덕분인데. 내가 감사하요. (주저하다) 이거야말로 초라한 것이지만... 아주 싫지 않다면 가지시오.

작은 가죽 상자를 내미는 리철, 열어보면 벡타이핀.  
붉은 빛이 도는 핀 뒷면에 쓰인 한글 글씨, '호연지기'.  
자신이 준 선물이 초라하다 생각됐는지 눈을 돌리며 헛기침하는 리철.  
벡타이핀을 내려다보는 흑금성, 리철의 마음을 느낀 듯 미소 짓는다.  
악수하는 둘, 차에 타는 리철.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보던 흑금성, 차가 멀어지자 급히 자리를 떠난다.

## 66. 차량 안. 오후

심각한 얼굴로 차량 안에 앉아 있는 리철, 정과장, 김명수.

정과장

박선생을 다시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요.

리철

사업이 우려되어 그런 것 아니겠소. 합작 사업의 나무가 이제 막 잎을 틔우려는데, 도끼로 밑동을 찍어서는 안 될 일이요. 서투르게 굴지 마시오.

정과장

김과장에게 한 번, 처장동무께 한 번. 두 번을 판문점에 대해 물었다는 건 심상찮습니다. (사이) 나무를 크게 키우려면, 가지는 쳐줘야 합니다. 박선생 감시, 허락해 주시지요.

눈을 감고 고민하던 리철,

리철

두 명만 붙여... 예의 있게 감시하십시오.

## 67. 챔피언스키 / 흑금성의 방. 오후

테이블 위에 놓인 벡타이 핀, 그 옆으로 속이 까뒤킵어진 작은 가죽 상자.  
도청 탐지기로 꼼꼼하게 검사를 하는 흑금성,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

탐지기를 내려놓으려다 곁에 놓인 보자기를 보는 흑금성,  
보자기를 풀고 송이버섯에 탐지기를 가져가다 이건 아니라는 듯 관두지만  
결국... 탐지기를 대보고 만다.  
반응 없는 탐지기. 탐지기를 테이블에 탁- 거칠게 내려놓는 흑금성.  
고개를 푹- 떨어트리고는, 긴 한숨을 내쉰다.  
침대 위에 드러 눕는 흑금성, 뭔가 괴로운 모습인데...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각 종 이미지들이 빠르게 스쳐지나간다.

권부장(V.O)

공산주의자들은 파렴치한 인간들이야.

- 흑금성의 상상

과거 물고문 훈련을 당하고 있는 흑금성의 모습, 고통스러워한다.

권부장(V.O)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팔아먹는.

흑금성, 식당에서 가족과 밥을 먹고 있는데 딸 민정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민정(V.O)

아빠. 빨갱이가 뭐야?

꽃다발을 든 안내원이 환한 미소와 함께 흑금성에게 다가온다.

안내원(V.O)

우리 당의 동지, 박채서 선생, 환영합니다.

침실, 흑금성이 부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

채서처(V.O)

여보 당신은 왜 군인이 될 생각을 했어요??

인질훈련을 하고 있는 흑금성, 밧줄에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려 있다.

권부장(V.O)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버릴 수 있겠나?

(CUT TO)

금고에 탐지기를 넣은 흑금성, 가족 다이어리를 꺼내 편다.  
가운데, 접힌 채 꽃힌 잡지 기사 페이지.  
열어보는 흑금성. 타이틀 '96년 4월- 북한으로 향한 밀가루 5000t'  
이미 몇 번을 읽었는지 곳곳에 글어진 밑줄.  
'청와대' '중국 통해' '의문 투성' 등의 글귀들.  
내려 보던 흑금성, 금고를 닫으려다 안에 든 권총을 뺀히 본다.

## 68. 베이징 외곽 / 텐진 항. 오후

- 텐진 항구 앞. 오후

택시에서 내리는 흑금성.

- 컨테이너 선적장. 오후

중국인 인부들에게 뭔가를 묻고 다니는 흑금성, 그럴 때마다 빠짐없이 건네지는 달러 지폐. 귀찮게 말라고 손을 젓고 짜증내던 늙은 인부에게 달러 지폐 몇 장을 더 주는 흑금성. 잠시 후. 늙은 인부,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어 친절하게 뭔가를 알려준다.

- 선적장 사무실. 밤

뚱뚱한 사무실 아줌마, 뒷주머니로 삐죽 삐져나온 100달러 지폐 세장.  
허리를 숙이고 초 집중 모드로 장부를 넘겨댄다.  
옆에서 같이 시선 고정시킨 흑금성.

아줌마 (중국어)

한국에서 위탁 배송 요청이 자주 있긴해도, 밀가루 운반은  
특이해서 기억을 하는데... 분명히 이쯤에... 아, 여기.

흑금성, 장부 내용을 확인한다. 찾는 게 맞는 듯.  
복사기 위에 올라가는 장부, 복사 불빛이 반짝이며 움직인다.

## 69. 재경위 사무실. 저녁

전화를 받고 있는 리철.

요원 (E)

다섯 시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리철

고생했고, 복귀해. (정과장에게) 이쯤 해두지.

정과장

처장 동무, 경계를 게을리 했다가는...

그만하라는 듯 손을 드는 리철, 입 다무는 정과장.

## 70. 서울 / 남산. 아침

- 주차장. 아침

새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수풀 속, 서울이 내려다보이는 주차장.

흑금성

부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박사 라인을 다시 가동한 겁니까?

권부장

... 그게 무슨 소린가.

흑금성

장박사를 통해 북과 접촉해 밀가루를 보내고, 그 대가로... 판문점 무력시위를 얻어 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권부장

무슨 증거라도 있는 건가.

흑금성

... 없습니다.

권부장, 흑금성을 뺀히 보더니

권부장

사실이라 해도, 자네가 물어볼 사항이라 생각하나? 그것도, 이렇게 무례한 방식으로.



고개 돌려 서울을 내려다보던 권부장, 한숨을 쉬더니 대뜸

권부장

그래, 어쨌면 내가 자네를 아직 아이라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정말 그랬다면 내 불찰일 것이고.

흑금성

네?

권부장

자네도 책임을 아는 어른이니... 그래, 장박사 라인을 움직인거네.

흑금성

...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장님... 왜 그러신 겁니까?

권부장

야당을 이끄는 게 누군가?

흑금성

김대중입니다.

권부장

우리 안기부 창설 이후 35년간, 김대중이는 주요 사찰 인물이었음을 모르진 않을 테지... 그만 큼... 사상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란 것이네. 그가 정권을 잡는 순간 기빠 춤출 건 바로 북한이네. 이제 내 뜻을 알겠나?

생각하던 흑금성.

흑금성

... 네, 부장님.

권부장

그쪽은 내가 책임질테니, 박소령은 자네 임무나 꼭 완수해 주게.

흑금성

명심하겠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던 권부장, 문득 흑금성의 넥타이에 꽂힌 편을 본다.  
리철이 선물했던.

권부장

붉은 빛이 도는 게 눈에 아주 튀는군. 주의하개.

빨히 보는 권부장, 결국 넥타이편을 빼내는 흑금성.  
조심하라는 듯 다시 한 번 더 흑금성을 보고 차에 오르는 권부장.  
허리 숙여 인사하던 흑금성, 차가 멀어지자 고개를 든다.  
손에 꼭 쥐었던 붉은 넥타이편을 내려다보는 흑금성.

- 남산 끝자락. 낮

슈퍼 앞 평상에 앉은 흑금성, 손에 쥔 '밀가루' 기사.

- 슈퍼 내부. 낮

전화기를 빌려 쓰는 흑금성, 버튼을 누른다.

## 71. 잡지사 편집국 / 슈퍼 내부. 낮

- 편집국. 낮

소파와 의자에 아무렇게나 앉고 누워 잠든 기자들.  
한산한 풍경, 그 중 책상에 앉은 김기자 전화기를 들며.

김기자

네, 전화 바꿨습니다.

흑금성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밀가루 복숭 기사, 잘 읽었습니다.

김기자

아, 예... 감사합니다.

흑금성

... 혹시 대북 사업 관련 기사도 기자님이 취재하십니까??

- 슈퍼 내부. 낮

통화하고 있는 흑금성.

김기자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쭙봐도 될까요?

흑금성

(생각하다) 예, 중국에서 대북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기자

혹시, 다른 할 말이 있으신 건 아니구요?

흑금성

... 아닙니다... 전화상으로 불쑥 이긴 하지만... 곧 정부발표도 있을 것인데, 세간에서 놀랄만한 사업 계약이 베이징에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때 단독 취재가 가능하게 편의를 봐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김기자

...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흑금성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 끊는 흑금성.

## 72. 캠핀스키 호텔 / 서울. 낮

- TV자료화면

MBC 9시뉴스에 '(주) 아자커뮤니케이션, 북한 측과 5년간 단독 광고 협약' 소식이 흘러나온다.

앵커(V.O)

안녕하십니까 MBC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아자 커뮤니케이션이 한국 최초로 북한 측과 5년간 단독 광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 복도. 낮

사람들로 북적댄다. 악수를 나누는 리철과 창주, 그 사이에 선 흑금성.

흑금성

저희 아자 커뮤니케이션 한창주 대표님이십니다. 이쪽은  
대외경제위원회 리철 차장님.

리철, 흑금성의 넥타이 쪽을 힐끔 본다.

쓰리버튼 양복 자켓의 두꺼운 카라에 잘 보이지 않는 넥타이.

다시 슬쩍 보는 리철, 하지만 자신이 준 넥타이핀은 보이지 않는다.

작은 실망의 빛이 돌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다소 상기된 얼굴로 복도를 훑어보는 흑금성.

복도를 가득 채운 남북 관계자들이 보인다.

각자 소속 기관들까지 쓰인 명찰을 단 남북 사람들, 보위부와 안기부 요원들도 보이고 안면이 있는 화이트 요원들끼리는 악수를 나누는 만남의 장, 그 사이에 이 실장과 김기자의 모습도 보인다. 요원들을 지나 김기자에게 다가오는 흑금성, 악수하는 두 사람.

흑금성

반갑습니다. 아자커뮤니케이션 전무 박채섭니다.

김기자

예, 시사인 김단호 기잡니다.

- 연회장. 낮

긴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리철, 그리고 한창주. 옆에 선 흑금성.

테이블 위 펼쳐진 계약서, 마지막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리철과 창주.

그리고 입구 주변에 모여선 북한 관계자들.

갈라지듯 맞은 편 벽 앞에 선 한국 관계자들.

잠시 후, 계약서에 동시에 사인하는 리철과 창주.

자막 '1997년 2월'

일어나 악수를 하는 두 사람. 대기하던 김기자,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박수를 쳐대는 사람들, 흑금성도 웃으며 박수를 친다.

- 아자 커뮤니케이션 사무실. 낮

띠리링- 띠리링- 사무실 여기저기서 미친 듯이 전화 벨 소리가 들려온다.  
몇 안 되는 직원들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직원1

예, 아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놀라며) 예? 삼성전자요...

예, 예... 아 예 아직 사장님께서 귀국 전 이셔서... 예...

- 캠프스키 호텔 연회장. 낮

한쪽에서 핸드폰 통화하고 있는 창주, 옆에 서 있는 흑금성.

창주

(전화 끊으며) 대박이야, 대박... 현대 자동차, 엘지, 삼성  
전자 다들 전화 와서 돈은 얼마든지 맞춰준다고... 자기네  
들이랑 하자고 난리네, 난리... 아 이게 꿈이나 생시냐...

흑금성

(웃으며) 이야 이거 사장님 빌딩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엄지를 치켜들며) 정말 대단하시네요.

창주

나만 올리나 박 전무도 같이 올려야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 좋은 얼굴을 웃는 흑금성.

### 73. 북한 곳곳. 아침 + 밤

- 평양, 순안비행장 앞. 낮

고려항공 비행기 앞, 승합차에 올라타는 흑금성, 창주, 리철, 정과장.  
곧 출발하는 승합차, 뒤따르는 보위부 요원들의 승용차.

- 승합차 내부. 낮

서로 마주 보고 앉은 흑금성, 창주, 리철.  
가운데 북한 지도를 펴 놓고 상의 중, 곳곳에 표시된 체크 포인트들.  
‘헌팅 계획서’ 문건을 꺼내 확인하는 창주의 상기된 표정.

조수석의 정과장, 혼자 뭔가 못마땅한 얼굴.

- 북한의 절경들. 낮

만개한 봄꽃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정자, 평양 을밀대.  
시원하게 쏟아지는 개성 박연 폭포.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는 금강산...  
감탄하듯 보는 흑금성과 창주, 어깨에 힘을 주는 리철.  
창주가 끊임없이 기록하고, 흑금성은 사진을 찍어낸다.

- 초대소 객실. 낮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긴 리철, 그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흑금성.

흑금성

개성, 금강산, 백두산... 좋죠. 한국 사람들, 다 보고 싶어하  
고. 근데 한 두 번 노출되면 싫증을 낼 수 도 있고 상품에  
따라서는 자연배경으로 찍는 게 컨셉이 어긋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제가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  
습, 그 진짜 모습을 봐두어야 거기에 맞는 광고들을...

손을 드는 리철, 말을 멈추는 흑금성.

리철

알겠습니다. 보시지요.

뭔 소린가 싶어 리철을 노려보는 정과장.

흑금성

감사합니다. 제가 꼭, 적합한 광고주들을 찾아 계약을...

리철

(말 자르며) 박선생.

흑금성

... 네?

리철

알겠으니, 보십시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가는 리철, 의아한 흑금성.

- 초대소 앞. 밤

리철에게 눈을 부릅뜬 정과장.

정과장

남조선 도당들에게 공화국을 통째로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실성하신 겁니까?!

리철

과장 동무, 공화국 집권자에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 당의 지시임을 알 것인데 그리 말하는 것은... 친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까부수는 것 아니오!

정과장

(움찔) ... 그런 뜻이 아니라...

리철

장군님께선 모든 판단을 내게 위임하셨소. 그것을 모르시오?!

정과장, 반박할 수 없어 썩썩대다 요원들을 데리고 떠난다.

- 초대소 로비. 밤

입구 벽에 붙어 시계를 보는 척 바깥 동향을 살피던 흑금성, 정과장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다. 로비에 놓인 전화를 들고는.

흑금성

한 사장님... 리 처장이랑 상의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따 다시 합류할까요? 네, 식사 챙기시고요~ 많이 파세요.

- 주택가 입구. 낮

승합차가 멈추고 흑금성, 리철이 내린다.  
따라 내리려던 수행원, 들어가 있으라는 리철, 흑금성에게 배지를 준다.  
노동당 깃발을 배경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얼굴이 박힌...  
보던 흑금성, 옷깃에 달면 돌아서서 담배를 무는 리철.  
흑금성, 발을 옮긴다.

- 주택가. 낮

단층 콘크리트 주택들이 이어진다. 그 사이를 걷는 흑금성.  
지나가는 몇몇 주민들, 허름한 옷에 찌든 얼굴.  
생경한 눈으로 흑금성을 쳐다본다. 흑금성도 마찬가지.

그렇게 걷기를 얼마, 콘크리트 주택가가 금방 끝나고,  
점점이 흩어진 옛날 가옥들, 말 그대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  
주민들의 모습도 조금 전 보다 더 생기 없고 힘 빠져 보이는.

- 장마당. 낮

시장으로 들어서다 발을 멈추는 흑금성, 놀란 얼굴이다.  
산나물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을 팔고 사는 상인과 손님들.  
그들 사이 군데군데, 배짱 마른 몸으로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흑금성 옆으로 지나가는 손수레 한 대.  
수북이 쌓인 무언가, 덮였던 모포가 살짝 벗겨지면.  
말라 비틀어져 죽은 사체들. 어림잡아 10여구는 되어 보이는.  
망연자실 보는 흑금성.

코너를 돌면 장마당 끝부분, 쓰레기 더미들 위로 움직이는 작은 몸들.  
넙마를 뒤집어 쓴 4~5세의 어린 아이 대여섯 명, 꽃제비들.  
쓰레기를 뒤져 썩은 음식물들을 찾아내 입으로 가져간다.  
황망하게 지켜보는 흑금성. 그러다 꽃제비 하나와 눈이 마주친다.  
벌떡 일어서는 꽃제비, 적개심 가득한 눈으로 흑금성을 본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어린 눈망울.  
피하지도 못하고 눈 마주쳐 보는 흑금성.

그 때- 머리 위로 에에에엥- 사이렌 소리.



벌떡 일어나, 어딘가로 달려가는 꽃제비들, 따라가 보는 흑금성.

장마당 가운데. 넓은 공터에 원을 그리며 선 북한 주민들.

사람들을 해집고 가보는 흑금성.

열댓 명의 무장 인민군들, 삐쩍 끓은 여자를 끌고 온다.

너댓 살 된 아이를 꼭 안은 30대 여자.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를 멀찌감치 떼놓는 인민군.

모든 걸 포기한 듯 넋을 놓은 여자. 앞으로 나서는 ‘판사’

판사

이 자는, 당의 재산인 양곡소에서 쌀을 훔친 죄로 체포되었  
다. 죄를 인정하고 위대한 책임을 지겠는가?!

여자

... 알겠습니다...

판사

사형!

여자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인민군들. 입에 쇠로 만든 재갈을 물려 버린다.

공포에 질린 여자가 마지막으로 뭐라뭐라 소리치지만

알 수 없는 웅웅거림만 나올 뿐이고.

여자의 앞쪽으로 자리를 잡는 인민군들, 소총을 겨눈다.

여자의 웅웅거림 소리가 극에 달할 때,

지휘관의 팔이 움직이고. 탕탕탕-

총을 맞은 여자가 쓰러진다. 땅 위로 흐르는 피.

충격 받은 흑금성. 더 놀라운 건-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익숙한 광경이란 듯.

지켜보기 힘들어 자리를 뜨는 흑금성, 사람들을 해집고 나가려는데.

인민군 장교

당의 위대한 재판 중 무단이탈하는 자가 있다!

그 목소리에, 흑금성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순식간에 뒤로 물러선다.

갑자기 혼자 덩그러니 서게 된 흑금성, 달려오는 인민군들.

흑금성을 향해 총을 겨누다 멈칫. 갓에 달린 배지를 보고

인민군

... 당 간부로 보입네다!

인민군 장교  
(조심스레) 당원증을 보여주시지요.

흑금성  
차에 두고 왔는데,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러자 바로 흑금성을 포박하는 인민군들.

인민군 장교  
혀 굴림이 이질적인디 말이야.

흑금성을 무릎 꿇리는 인민군들, 그 때 뒤에서 나타나는 리철.

리철  
지금 접견자께 무슨 실례요!

인민군 장교  
저... 접견자...?!

리철 손에 들린 노동당 당원증. 확인한 장교.  
죽을죄를 진 듯 고개를 떨어트리는 인민군들.

인민군 장교  
감당하기 벅찬 실례를 범했습니다...

리철에게 괜찮다는 듯 꼬덕여 보이는 흑금성, 알겠다는 리철.  
흑금성, 공포에 질린 인민군들을 처연한 눈길로 본다.

## 75. 승합차 내부. 오후

비포장도로를 달리느라 덜컹대는 차체, 그 진동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흑금성과 리철. 입을 꼭 다문 두 사람.

## 76. 초대소. 밤

- 초대소 앞. 밤

승합차에서 내리는 흑금성과 리철, 기다리고 섰던 김명수.

김명수

오셨습니까 박선생님. 오늘은 당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과 연회가 있으니, 어서 들어가시지요.

사정도 모르고 싱글대머 앞장서는 김명수.

- 초대소 식당. 밤

원형 테이블에 차려진 산해진미들, 둘러앉은 흑금성, 창주 - 리철, 김명수.

김명수

이거이 전부, 남조선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식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많이들 드시지요.

창주

이야, 저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처음 보는 것들이 많 습니다?

김명수와 창주, 꺄꺄대며 음식을 먹어 댄다. 흑금성, 젓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마음 꺄 먹지 못하고. 리철이 그런 흑금성을 본다.

## 77. 평양 / 대동강. 밤

대동강 위를 유유히 움직이는 작은 배.

배에서 들리는 클래식 기타 연주 소리, '로망스'

기타를 치는 곱게 차려 입은 안내원 - #59 초대소에서 등장한 -

근처에 앉은 창주와 김명수, 술에 취했는지 눈을 감고 감상에 젖어 들고.

다른 곳에 각각 앉은 흑금성과 리철, 아직도 서로 말이 없다.

연주를 마치는 안내원. 박수를 쳐대는 창주와 김명수. 기분 좋아 보인다.

김명수

안내원 동무, 이렇게 남북이 한배를 탔으니, 민족 가요 하나 불러주시지 그러나.

똑같은 미소로 끄덕인 안내원,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

안내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곱고 청아하지만, 구슬픈 느낌. 지그시 눈이 감기는 흑금성.

안내원의 아리랑 노래 속에 소리가 묻히는, 흑금성의 긴 한숨.

그러다 리철과 눈이 마주친다. 서로 보는 두 사람.

두 눈에 눈물이 맺히는 흑금성, 복 돌아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다.

뭔가 달라진 흑금성의 얼굴, 보는 리철.

대동강 위로 계속 퍼지는 아리랑 노래 소리.

안내원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 78. 경부고속도로 / 차량 안. 낮

쏟알같이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 안, 화난 김소장의 얼굴.

손에 펼친 신문, 지면을 가득 매운 기사와 제목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 김대중 Vs 이회창 0.6% 박빙’

신문을 구겨 던져 버리는 김소장, 옆에서 눈치 보는 권부장.

김소장

권부장, 안기부가 뭐의 약자예요?

권부장

국가 안전... 기획부입니다.

김소장

그런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안전하지 않은

지금! 왜 안전을 기획하지 않으십니까. 네?!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깐.

쩔쩔매는 권부장, 아무 대답도 하지 못 한다.

김소장

권부장님... 어디 몸 안 좋은데 있으세요?! 이제 은퇴하시

고 손자들 하고만 노시고 싶은 신 가봐... (사이) 뱃지 안

다실거예요?!

권부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사진 두 장을 집어 드는 김소장, 보면 원본은 태극기 밑에서 김대중이 연설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합성본은 원본의 태극기를 인공기로 갈아 끼운 사진이다.

김소장

이런 걸로 되겠어요?! 이런 썸 백날 날려봐야 아무 타격도 없습니다. 한방에 보낼 수 있는 걸 기획해야지. 자잘하게 썸 백번 날린다고 상대가 쓰러집니까?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사이)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합성 티가 나잖아.

권부장

더 확실한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소장

권 부장... 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번 대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 하세요. (사이) 안 그러면 올해 연말 제야의 종 치는걸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 79. 워커힐 안가. 저녁

황- 문을 열고 권부장이 안가로 들어온다. 별컹별컹- 위스키를 병 채로 마시는 권 부장, 맞은 편 이실장에게.

권부장

오대산 공작에서 장박사는 제외하지.

이실장

(의아해하며) 네? 장박사를 제외하신다면... 누구를??

권부장

... 흑금성으로 갈아 끼워야겠어. 어차피, 리철 라인까지 뚫은 것도 흑금성이니. (사이) 뿔보다 흑금성도 책임을 나눈다면, 만일의 경우... 활용하기 쉬워지지 않겠어?

이실장

... 옳으신 판단입니다.

## 80. 서울 / 사무실 내부. 저녁

아자커뮤니케이션 사무실, 사장 자리에 앉은 권부장.

그 앞 소파에 앉은 흑금성,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내려다본다.

흑금성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장님... 왜 여당의 편지를... 북측에...

권부장

별 내용 없으니, 자넨 그냥 전달만 해주면 돼. 그쪽에서 미리 개봉했을 때 흔적이 남게 약품을 발랐다니, 혹여나 딴 생각 말고, 그대로 전해줘.

흑금성

부장님. 그들에게 전 사업가입니다. 사업가가 여당 측의 편지를 전달한다면 그들은 저의 존재를 의심할 겁니다.

권부장

으음 꼭 그렇진 않아. 사업가야말로 정치인과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지. (사이) 이제 2주후면 대선이야. 자네도 역할을 해줘야지?

흑금성

... 여당의 편지를 전하는게... 왜 저의 역할입니까.

권부장

... 자네 역할은, 국가에서 정하는 거야. 잊었나?!

흑금성

부장님,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 총선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북한이... 이번엔 한국 대선에 개입할 빌미를 줄 듯 합니다. 여당의 편지면 당연히... 야당에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고...

권부장

김대중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도 좋다는 뜻인가. 이 조국을, 빨갱이 손에 넘기겠냐 말이야?!

흑금성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선거에 개입해도 되는 것인지...

인상 팍 구겨졌던 권부장, 하지만 곧 묘한 미소와 함께

권부장

자네 언제부턴가... 의문이 많아졌어. (일어서며) 명령 사이에 끼어든 의문은, 적에게 충을 들 기회를 줌을 모르나.

흑금성

부장님, 제가 만든 리철 처장 라인은... 광고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권부장

박소령.

흑금성

네...

권부장

이봐... 그 광고 사업이라는 게 최종목적이 뭐야? 국군 장병들의 비석 앞에서 우리 맹세하지 않았나. 이 나라를 빨갱이들로부터 지켜내기로... 그 맹세, 잊었는가?

흑금성

잊지 않았습니다.

권부장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걸세. 그럴 수도 있지... 정치라는 것이 상상 밖으로 복잡한 문제이니... 그러니... 조금만 더 나를 믿고 따라 와주길 바라네.

흑금성

... 부장님...

권부장

(목청 높이며) 전달만 해. 토달지 말고.

흑금성

... 알겠습니다.

권부장, 흑금성 어깨를 토닥여주고 나간다.

## 81. 베이징 / 캠퍼스 호텔. 저녁

- 복도. 밤

복도를 걸어오는 흑금성, 곧 문 앞에 도착하면 지키고 선 복한 요원 둘.  
흑금성에게 고개 숙여 보이고는 문을 열어준다.

- 스위트룸. 밤

넓은 객실 공간, 소파에 앉은 김명수, 정과장. 혼자 등지고 서서 창밖을 보는 리철.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흑금성, 일어서는 김명수와 정과장.

흑금성

... 저 죄송하지만... 처장님과 둘이서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명수

네? 물론이고 말고요. 그러시지요!

못마땅해 하는 정과장을 데리고 나가는 김명수.  
리철 맞은편에 앉은 흑금성, 권부장이 준 편지를 테이블에 내민다.

리철

박선생, 이게 무엇이요?

흑금성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는 여당 쪽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북측에 전해달란 부탁을 받아서요.

순간 눈을 찌푸리는 리철. 그러나 곧 실실 웃는 얼굴로.

리철

그 양반 혼이 좀 내야겠는데. 바쁘신 박선생을 심부름꾼으



로 부리고 말아야.

하며 슬쩍 편지를 챙기는데 주저하던 흑금성

흑금성

리처장님. 그 편지... 당에 전달하실 겁니까?

리철

아니 박선생이 부탁하셨는데 당연히 그래야지요.

흑금성

마음에 좀 걸려서요. (사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함께  
한건 아니잖아요.

담배를 물며 흑금성을 한참 보던 리철, 담배 불을 붙이고는 후- 긴 연기를 뿜어내  
고는

리철

그렇다치면, 박선생은 왜 이걸 없애지 않았소. 내게 그런 부  
탁을 하기 전에, 전달을 안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 대꾸할 수 없는 흑금성, 그런 흑금성을 의심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리철.

## 82. 캠프스키 호텔 / 야외주차장. 아침

호텔 입구 근처에 주차된 중형 세단. 짙게 썬팅 된 창문, 차 운전석의 흑금성.

얼마 후, 호텔 입구에 도착하는 대형 세단.

차에서 내리는 양복 입은 남자 두 명. - 여당 국회의원 박의원, 유의원

## 83. 캠프스키 / 흑금성의 방. 저녁

일기를 쓰는 흑금성.

흑금성 (v.o)

캠프스키 호텔 12층, 여당 측 의원들이 앉아 있다. 이를 쬔  
돌아가지 않고 있다. (사이) 리처장의 말이 맞았다. 편지는  
내가 처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펜을 멈췄던 흑금성.

흑금성 (v.o)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아야한다. 자꾸만 신경이 날  
카워진다. 나도 이제 나를 통제할 수 가 없다.

일기장을 덮고 일어서는 흑금성, 수화기를 든다.

(CUT TO)

금고를 여는 흑금성, 금고 안에 든 갖가지 전자 장비들, 그리고 지폐 뭉치.

#### 84. 캠프스키 호텔 / 차량 내부. 밤

- 열쇠집. 밤

캠프스키의 독일직원 - 과거 흑금성 집을 맡아줬던 - 이 열쇠집 노인에게 키를  
준다. 키를 슬쩍 보더니 똑같이 만들어 가는 노인.

- 흑금성의 방. 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열어보면 곱게 접은 수건을 들고 선 독일 직원.  
받아들고 문을 닫은 흑금성, 수건을 펼치면 열쇠 하나.

- 복도. 밤

핸드폰 통화를 하는 흑금성,

흑금성

처장님, 지금 객실 앞인데 잠시 뵐 수 있을까요?

통화하며 요원들 앞으로 오는 흑금성.

- 승용차 내부. 밤

리철

지금 호텔에 거의 도착하긴 했는데... 다시 약속이 있소.

흑금성 (E)

직접 뵙고 물건만 넘겨드리겠습니다. 한국 쪽 기업에서 넘  
어온 광고 시안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휴대폰 광고입니다.

손목시계 시간을 보는 리철, 짹툭 룰렉스.

리철

죄송하지만, 물건만 받고 다음 약속에 임해야 할 듯 합니다.

흑금성 (E)

괜찮습니다. 그럼 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처장님.

- 복도. 밤

핸드폰을 끄는 흑금성, 요원들에게.

흑금성

방에서 기다리라 하시는데.

서로 보던 요원들, 문을 열어준다.

- 스위트룸. 밤

들어온 흑금성, 곧바로 내실로 연결되는 문 앞으로 간다.

열쇠를 꺼내 열고 들어가면 침대 주위로 설치된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  
그리고 곳곳에 쌓인 문서 파일들.

- 차량 내부. 밤

갑자기 엇 하는 리철.

리철

(혼잣말로) 무슨 방을 말하는 거야?!

바로 핸드폰을 누른다.

- 스위트룸 침실. 밤

빠른 속도로 팩스 옆판을 드라이버로 떼어 내는 흑금성, 팩스 내부 부품 옆에 소형

기계 장치를 부착한다. 그 때 밖에서 작게 들리는 핸드폰 벨소리.

- 복도. 밤

문 앞을 지키던 요원에게 걸려오는 전화, 바로 받으면

리철

박선생 어디 계시나?

- 침실. 밤

다시 옆판을 붙인 흑금성, 드라이버로 나사를 쏘아 간다.

- 차량 내부. 밤

리철

누구도 들이지 말랬더니. (사이) 모시고들 있어.

호텔 앞에 도착, 멈추는 차량. 내리는 리철

- 침실. 밤

마지막 나사를 쏘는 흑금성. 푹푹- 노크소리.

순간 나사를 떨어트린 흑금성, 집어 들고 빠르게 드라이버를 돌린다.

- 복도. 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요원 1. 곁에선 요원 2, 끄덕여주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요원들.

- 스위트룸. 밤

요원들이 들어서면, 흑금성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흑금성.  
요원들을 본 흑금성, 짐짓 놀란 척 보면

요원 1

아... 기다리기 적적하실까봐... 여쭙볼 것도 있고

흑금성

아 그래요? 앉으시죠.

- 복도. 밤

빠르게 걸어오는 리철, 객실 문을 연다.

- 스위트룸. 밤

리철을 보고 일어서는 흑금성, 웃음 띤 얼굴로.

흑금성

저장님, 요새 너무 뵈기 힘듭니다? 설마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시겠죠?

리철

이거 박선생- 서운한 말씀은 사양합니다. 당 업무가 많았습니다. 수 일 내로 식사를 함께 하시죠.

흑금성

(장난치듯 경례하며) 네, 기다리겠습니다. (문건 건네며) 문건은 여기. 확인하고 연락주세요. (사이) 많이 파세요.

흑금성, 고개 숙여 보이고 나간다. 그리고 요원들에게 치직- 무전 소리.

정과장 (E)

손님 모신다. 대기들 하라.

턱짓하는 리철, 달려 나가는 요원들.

침실 문으로 가 손잡이를 돌려보는 리철. 단단히 잠긴 문.

- 복도. 밤

달려오는 요원들. 흑금성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층수 표시창을 지켜보는 요원들. 6층에서 멈추는 엘리베이터.

곧 옆 엘리베이터가 도착한다. 내리는 김명수와 정과장.

그리고 한국 박의원, 유의원.

- 계단실. 밤

계단을 올라가는 흑금성.

- 11층 복도. 밤

흑금성, 1102호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 스위트룸 내부. 밤

악수하는 리철과 박의원 유의원.

## 85. 호텔 1102호 / 1202호. 밤

- 1102호. 밤

천장에 붙은 수신증폭 장치, 선이 쪽 이어져 내려오면.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스피커, 헤드폰, 팩시밀리 등.  
그 앞에 앉아 헤드폰을 낀 흑금성, 볼륨을 최대로 높인다.

박의원 (E)

우리가 논의를 해봤는데, 대선이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대남 방송이나, 김대중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그  
정도는 효과가 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소.

리철 (E)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유의원 (E)

총선 때처럼, 군사 행동 정도는 있어야 돼지 않겠습니까.

박의원 (E)

다만, 이번엔 단순히 무력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인... 그 (잠시) 타격을 줬으면 하오. 뉴스 화면 한 장면만  
봐도 국민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 아, 일단 안보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사이) 김대중이가 되면 안 되겠  
다, 딱 바로 느껴지게 말이오.

흑금성, 다이어리에 메모를 한다. '대선 개입, 김대중 낙선'

리철 (E)

... 어디 남쪽 어선에다 미사일이라도 박아달란 거요? 허허

박의원 (E)

(감탄조) 아... 그거 팬찮은데요?

도청을 듣다 놀라는 흑금성.

- 1202호. 밤

리철도 좀 황당하다는 얼굴. 그러나 이내 웃어보이며

리철

농담이었소.

유의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정말 팬찮은 아이디어요.

리철

이보시오 의원 선생님들. 지켜야할 선이라는 게 있소. 지금  
광고 사업으로 남북 관계에 온풍이 부는 마당에, 미사일이  
란 찬물을 끼얹으면 광고부터 남북관계, 모든 것이 얼어붙  
을 것을 모르시오? 적당함을 아셔야지.

박의원

남북관계는 어차피 지난 40년간 늘 얼어 있었습니다. 때문  
에 얼음의 두께가 상당해졌는데... 그게 아예 녹길 바라십  
니까? 흘러넘친 물이 남북의 체제를 바꾸면... (사이) 우리  
들도 자리를 내놓을지도 모르는데, 진정 그러길 바라시나  
말입니다.

‘이 새끼가’ 하듯 보는 리철.

리철

그래서 의원선생은 지금, 그 얼음이 두꺼워지게, 남측에 직접  
미사일을 쏘달라는 겁니까. 그게 사람으로 할 소립니까.

박의원

이거 뭐랄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앉아 이야기하니 대화가  
답답해지네요.

김명수

자자, 그러지들 마시고. 처장 동무, 어차피 당에서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오? 일단 물어나 보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유의원

어쨌든 처장님은 저희 제안을 전달하실 의무가 있으시니 물어나 봐주시지요. 우선 저희는 노고에 대해 미국 달러로 이렇게 보상해 드리려 합니다.

- 1102호. 밤

헤드폰으로 들리는 글씨 쓰는 소리.

김명수 (E)

호탕하십니다! 처장 동무, 전문을 보내보겠습니다!

계속 대답 않는 리철, 김명수의 말소리.  
흑금성, 옆에 놓인 노트북과 팩시밀리를 켜다.  
헤드폰으로 멀리서 들리는 팩시밀리 버튼 누르는 소리와 발신음.  
그 소리에 따라, 노트북 화면의 그래프가 출력대더니.  
곧 노트북에 연결된 팩시밀리도 작동한다.  
팩시밀리가 뱉어내는 용지 위 손 글씨.  
'360만 달러' 하- 기가 막히는 흑금성. 정적 뒤 이어지는 목소리들.

-1202호. 밤

냉랭한 분위기, 눈치를 보던 유의원

유의원

저... 얼마전에 북측 인사에게 들었는데, (사이) 북에서도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리철

북측 인사라는 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인테, 그게 무슨 소리요?!

다시 정적, 지켜보던 정과장.

정과장

공화국 입장에서 노련한 정치인을 상대하는 건 녹록치 않긴



합니다.

리철

정과장, 허 조심하라!

박의원

하긴 말입니다. 북한 또한 외부의 적이 있어야 버틸 수 있을건데, 김대중이 당선되면 욕을 하기도 애매해지니...

정과장

그러니, 북과 남이 공동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리철

(정색하며) 정과장 동무, 당장 나가시오!

리철을 쏘아보듯 보던 정과장, 피식- 웃고는 나가버린다.

- 1202호. 밤

다이어리에 쓰이는 글씨, ‘북, 김대중 당선 바라지 않음?’

자기가 쓴 글을 보며, 얼굴에 의욕이 가득 차는 흑금성, 곧 이어지는 회한의 한숨.

그 때, 헤드폰으로 들리는 요란한 팩스 수신음, 노트북 화면 속 그래프도 파동치더니 헤드폰 속 팩스 수신음과 같은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러자 연결된 팩시밀리가 작동하고 용지가 출력되어 나온다.

밑에서 부터 보이는 용지, 인쇄된 노동당 마크와 양식 틀.

이어서 ‘광명성’ 이라 휘갈겨 쓴 싸인.

계속 나오는 용지, 본문이 보인다. 타이핑 된 글씨들.

‘12월 15일, 서해 어선, 미사일 발사. 승인’

경악하는 흑금성.

김명수 (E)

당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리철 (E)

뭐요?!

두 사람 정도가 박수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박의원 (E)

고맙소, 북한이 우리를 살렸소! 미사일 한 방이면 저희 쪽  
은 압승입니다 압승... (흥분한 듯) 대한민국 만세! 김정일  
장군 만세! 하하하...

더 들을 수 없는 흑금성, 헤드폰을 벗어 집어 던져 버린다.

## 86. 캠퍼스 / 주차장. 밤

리철이 호텔에서 수행원들과 나오는데 흑금성이 앞을 막아선다. 수행원들에게 먼저  
가라는 지시를 내리는 리철.

흑금성

그 때 북한에서, 왜 내게 주민들을 보게 했던 것이오.

리철

... 박선생이 요청하지 않았소?

흑금성

내가 보기를 바랬던 건 아니오?

리철

... 무리하게 짐작하지 마시오.

흑금성

광고 사업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광고를 계기  
로 북이 남과 접촉해 변화길 바란다는 걸... 그걸 말하고 싶  
었던 것 아닙니까?

리철

... 그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소. 거기엔 박선생의 편지도  
일조했고 말이오.

하고는 차에 올라타는 리철.

## 87. 서울 / 지하주차장. 밤

컴컴한 실내, 권부장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온다. 운전수가 문을 열어주자 차량

에서 내리는 권부장, 집으로 향하는데 한쪽에서 기다리던 흑금성이 다가온다.

권부장

(기분 나쁜) 승인도 없이 귀국하더니...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흑금성

(충혈 된 눈) 죄송합니다 부장님. 위급상황이라 무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어제 북측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 여쭙야 했습니다.

권부장

어떤 사항인가?

흑금성

북측 정권은 공산주의 정신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부장

명명백백한 사실이지.

흑금성

그리고 김대중 또한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됩니다. 부장님 말에 의하면 그 또한 공산주의자니 말입니다.

권부장

왜 자꾸 뻔한 소리를 하고 있나.

흑금성

그런데 북한은 김대중이 당선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요...

음... 음... 하며 머리 굴리는 게 훤히 보이는 권부장.

권부장

... 그들을 감시했나?

흑금성

대답 안하셨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왜 공산주의자를 반대하는지.

권부장

... 이해하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에 양발을 걸쳐 살아온지 벌써... 그래, 정체성의 혼란이 올 법도 하네. 하지만 내 말 잘 듣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악독함이야. 서로 같은 존재이면서, 또 서로를 반대하는, 정신병에 가까운...

권부장

(붉게 물든 눈) ... 그만 하시죠...

권부장

뭐?! 자네 지금 상관에게 이 무슨 버릇인가?! (버럭) 공산주의에 물들어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화를 참으며) ... 조금 더 성장하게. 안목을 넓히고 도량을 넓히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언젠간 이해될 거네. 정치라는 건 보통 사람들의 논리로 포용하기가 힘든 것 이지.

흑금성

(버럭) 제발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흑금성의 울분이 지하주차장에 울려 퍼진다. 살벌함에 살짝 겁먹는 권부장.

흑금성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울분을 토하며) 부장님이 속한 집단은 늘 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적을 이용해 국민들을 자극하고 손에 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라고 말입니다!!!

권부장

(버럭) 무슨 소리야! 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김대중이를 막으려는 거야!!!

황당함을 느끼는 흑금성, 웃음도 안 나온다.

흑금성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집권 여당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사이) 군인으로서, 부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부장님을 존경할 수 있게 제발...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버리는 흑금성, 다리에 힘 풀리는 권부장.

## 88. 북경 시내. 밤

리철이 홀로 북경 야경을 보며 서 있는데 멀리서 흑금성이 걸어온다.

(CUT TO)

독대한 흑금성과 리철, 양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피로워하는 리철.

흑금성

예전에 그러셨지요. 베이징의 야경을 보며, 개혁 개방한 중국이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달라졌다고.

리철

... 문을 열어젖힌 중국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소.

흑금성

그럼에도, 최소 해볼 만한 시도라 생각했던 것 아니었소? 지금 우리가 그냥 손을 놓는다면... 시도를 해볼 기회조차 모두 날아갈 것이오.

리철

... 박선생은, 대체 누구시오?

잠시 둘 사이에 흐르는 정적.

흑금성

어차피 서로 모르는 게 좋은 것들은 미루어 짐작만 하고 묻지들 알아왔지 않았소.

리철

... 그랬지요. 그렇다면 박선생도 직접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다. (사이) 지금 북에서는 300만 동포들이 배고픔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소. (눈가에 눈물 고여)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한 아이들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피를 토하며 죽어가거나... 단돈 10달러에 팔려가고 있단 말이지요. (분노의 찬 얼굴) 그런 이 시국에 자기들 용돈이나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미사일을 쏘겠다. 안 될 일이

지.

처음 보는 리철의 감정적 모습에 다소 놀라는 흑금성.

리철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미사일 포대가 이미 움직이고 있  
소... 늦었습니다.

흑금성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남았습니다.

리철

... 무슨 방법이 있단 소리요?

흑금성

위원장을 뵙게 해주시오.

흑금성의 직설 화법에 놀라는 리철.

## 89. 헬기 안. 낮

군용헬기가 굉음을 내며 주석궁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창밖을 내다보며 결의를 다지는 흑금성, 맞은편에 앉은 리철.

## 90. 주석궁 / 김정일 집무실. 저녁

넓고 넓은 사무실, 새하얀 벽지와 가구들. 하얀 말티즈가 바닥을 뛰어 다닌다.  
소파에 편하게 누워져 앉은 김정일.

김정일

남조선 동무들은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선  
거 때마다 쫓르르 달려와서 무력시위를 해달라, 미사일을 쏘  
달라. 그러니 내 어찌겠어, 동포의 부탁을 들어줘야지. 내 말  
이 맞지 않소 박선생?

맞은편에 앉은 흑금성과 리철.

흑금성

... 글썽요...

흑금성의 발언에 놀라는 리철, 긴장한다.

흑금성

위원장님께선 한 손엔 나진 선봉 개항과 개성공단 특화라는 과감한 개혁 개방 조치를, 다른 손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이은 미사일 발사라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쥐고 계십니다.

김정일

칭찬인가? 비난인가?

흑금성

둘 다 아닙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내일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어느 쪽이든 하나는 놓아야 하실 겁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노려보던 김정일, 과장되게 껄껄- 웃어대더니

김정일

박선생 안 보는 사이 대범함이 커졌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요. 허나, 걱정마시오. 내가 꼭 쥐고 있을 것이니. 진심어린 우려 고맙소. (일어서며) 그만 가보시오.

흑금성

제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가려던 김정일, 리철을 보며 ‘애 왜이래’ 하듯 보지만 멈추지 않는 흑금성.

흑금성

지금 한국 내에, 지난 총선 당시 판문점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다시 비슷한 북측의 무력도발이 일어난다면, 남쪽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악화될 것입니다.

김정일

남쪽 국민들 생각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는거요? 그러기엔 위원장 일이 만만찮게 바쁨을 모르시는구만.

흑금성

악화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북한이 뒤를 봐준다고 생각하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 후보인 김대중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럼 현재 근소하게 앞선다고 예측되는 김대중 후보는 더 많은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에 - 강력한 역풍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김정일, 인상이 찌푸려진다.

흑금성의 수위를 넘는 발언에 긴장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리철.

흑금성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김정일

... 또 뭐요?!

흑금성

무력시위를 일으켜 달랬던 자들이 이제 미사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엔 무얼 부탁할까요?

김정일

(으쓱하며) 공화국엔 막강한 화력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 그 때 강력한 무기를 고르면 되지 않겠소?

흑금성

그럼 위원장께선 남측에서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되면 오만한 남측 인사들은 위원장은 달려만 좀 주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만만하게 생각할텐데 말입니다.

김정일

(괴식 웃다 이내 정색) 내 박 선생을 만날 때 좋았던 점이... 다른 남측인사와 달리 돈 얘기만 했던 것이 좋았었는데... 이제 보니 박 선생도 다른 게 없구만 그래.

흑금성

(한숨 쉬며) 저는 그들이 그런 꺾보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진심으로 우려하는 것입니다.

흑금성을 노려보던 김정일, 리철에게 눈을 돌리더니

김정일



동무는 어찌 내게 큰 수모를 주려는 것이오?!

리철

죄송합니다. (조심스레) 허나 장군님, 박선생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당장 경제적 가치만 보더라도 눈 앞 300만 달러 보다는 광고 사업으로 공화국에 생기는 수익이 장기적으로 더 클 것입니다.

김정일

그러니 하는 말 아니오?! 내 잘못하다간 남조선 의원 놈들  
에게 놀아날 뻔 하지 않았소! (사이) 내 남조선 도당들에  
게 본패를 보여줘야겠어.

리철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장군님.

김정일

어차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남한 선거에 개입 할 수 있  
다는 건 충분히 보여 주지 않았겠어. (사이) 미사일, 내 지  
시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보류 시키시오.

놀라는 흑금성과 리철.

리철

알겠습니다!

## 91. 서해안 관측소. 낮

망원경 시점으로 보이는 서해 바다 위 한 선박, 아무 일 없이 여유롭다.

자막 '1997년 12월 15일, 제15대선 D-3'

## 92. 워커힐 안가. 밤

전화기를 붙들고 끄끙대는 권부장과 이실장.

권부장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진짜 미사일 안 떨어졌어? 바닷

속까지 살살이 뒤져보란 말이야!!

에이- 하며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는 권부장.

이실장을 보면, 통화를 마치고는

이실장

... 부장님, 흑금성이 베이징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데... 평양발 고려항공을 탔었다고 합니다.

권부장

... 끌고 와!

### 93. 김포공항 / 워커힐 안가. 낮

- 공항. 낮

입국 게이트로 들어오는 흑금성, 눈만 살짝 움직여 주변 인물과 상황들을 파악한다. 수많은 사람들 중- 핸드폰 통화 하는 남자, 신문을 읽는 여자, 커피숍에 앉은 남자 등 -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 출구 주변에 대기 중인 남자들, 나름 자연스럽게 행동하지만 흑금성의 눈엔 대번에 정체가 보인다. 안기부 요원들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방문객 접근 제한 펜스 뒤에 선, 자신의 딸 민정과 아내. 웃으며 '잠시만'이라는 제스처 취한 흑금성, 핸드폰을 꺼낸다.

- 안가. 낮

핸드폰이 울리자 받는 권부장.

흑금성 (E)

부장님, 찾아 뵈네니 직원들 물리시죠. 소란 일으키지 말고.

권부장

결국 자네... 배신한 게 맞는 건가 (사이) 내가, 배신자를  
왜 믿어야하지.

- 공항. 낮

흑금성

마음먹었다면, 절 찾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권부장 (E)

... 좋아. 거기 직원 중 한 명을 보내겠네.

전화 끊는 흑금성, 환하게 웃으며 민정에게 다가가면

아빠- 민정이 뛰어 와 안기는데 저기 뒤에서 안기부 직원 한명이 다가온다.

#### 94. 안기부 비밀 취조실. 아침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흑금성이 취조실을 서성이는데 권부장이 문을 열고 취조실로 들어온다.

권부장

왜 나를 배신하고 김대중이 편을 든 건가?

흑금성

... 누구 편을 든 게 아닙니다.

권부장

그게 아니라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혹시... 누가 자네 뒤를 봐주고 있는 거야?!

흑금성

(한숨) 어떤 이유에서라도 북한의 무력시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부장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이유를 말하란 말이야?! (버럭) 왜 날 배신했는지?!!

흑금성

... 오직 국민의 뜻으로만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권부장

판단? 그 판단은 ... 빨갱이들한테 배운 건가. 각오하게. 만약 현재 진행 중인 투표가 끝나고 그 결과 김대중이가 당선된다면...

간절한 얼굴의 권부장, 불쌍하다는 듯 보게 되는 흑금성, 수갑 차인 팔을 내민다.

흑금성

가보겠습니다... 풀어 주십시오.

권부장

저기 밖에 있는 안기부 직원들도 자네가 누군지 모를만큼, 유명처럼 살아왔지. 그런데 말이야 지금 조금이라도 더 나를 도발한다면, (낮게) 자네는 진짜 유명이 될 수도 있어.

흑금성

제가 유명이 되는 순간 한국방송사는 물론이고 NHK, BBC 등 각 종 해외 방송사에 국제우편이 자동 발송 될 것입니다.

권부장

뭐?!

흑금성

부장님과 제가 나눈 지난 10년간의 모든 대화가 세상에 공개될 거란 얘깁니다. 일주일 안으로.

권부장

... 허... 허허... 말도 안 되는 협박이 내게 먹힐 것 같은가?

흑금성

제가 공개되거나 죽는다면. 동시에, 부장님도 공개되거나 죽는 겁니다.

미소 짓는 흑금성, 책상을 쿵! 내려치는 권부장.

권부장

나를 만날 때... 감히... 녹음을 했다는 건가?!

흑금성

부장님께 확실하게 배워서 말입니다. 모든 접촉을, 녹취하라

다시 수갑을 내미는 흑금성, 부들부들 떨다, 어쩔 수 없이 풀어주고 마는 권부장. 수갑을 던져 놓고 나가던 흑금성.

흑금성

입사 원서도 없었으니, 사직서도 필요 없겠죠?

권부장

뭐?!

흑금성

꼭 여당측 후보가 집권하여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군 후배로서 제 개인적 바램입니다.

흑금성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하고는 취조실을 나간다.  
어찌지 못한 채, 고개를 푹 떨어트리느 권부장.

#### 95. 초등학교 앞. 오후

급하게 택시가 멈추면 흑금성 차량에서 내린다.  
손목시계를 확인하고는 초등학교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흑금성.

#### 96. 초등학교 안 투표소. 낮

흑금성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온다.

- 기표함. 낮

선거용 도장을 드는 흑금성, 투표용지에 누군가를 선택해 꾸욱- 도장을 찍는다.

- 투표소. 낮

접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흑금성.

#### 97. 한국 / 중국. 아침

- 역 대합실. 아침

앞거나 선 많은 사람들, 티브이를 본다.  
티브이 속, 기자회견을 하는 김대중의 모습.

뉴스 자막 ‘제 15대 대통령 당선인 김대중 후보 기자 회견’

김대중 (E)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우리의 선거를 주시했습니다. 국난을 맞은 한국민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 중국, 캄핀스키 호텔, 아침

중국 방송을 보는 리철, 김대중의 회견 내용이 중국어 자막으로 찍혀가고.

김대중 (E)

현재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며,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입니다. 통일은 그 이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할 문제입니다.

- 한국, 흑금성의 집, 아침

흑금성에게 안긴 민정, 그 결의 아내, 같이 티브이를 본다.

김대중 (E)

남북한 특사를 교환해서 남북합의서 실천방안을 논의할 것을 북한 측에 제안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김정일 총비서와 정상 회담을 갖는 것도 제안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이 뜨는 화면 아래, 새로 생기는 글씨들  
‘김 당선인, 남북 정상회담 제안’

- 연구소, 낮

티브이 속 김대중.

김대중 (E)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위대한 한국의 시대를 여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

떡- 꺼지는 화면, 리모컨을 집어 던지는 김소장.

- 워커힐 안가, 낮

의자를 던지며 으아아아악- 발광하는 권부장, 그 위로 들리는

기자 (E)

서울지검 공안부는 수사기획단을 만들어 지난 대선 당시 일련의 폭풍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 98. 안기부 / 위커힐. 낮

- 안기부. 낮

들이닥친 검찰들, 압수수색을 한다. 망연자실 안기부 직원들.

기자 2 (E)

검찰이, 96년 총선 직전 일어났던 이른바 판문점 무력시위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안기부 최고위층을 넘어 지난 정권 핵심 인사들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위커힐 안가. 낮

테이블 위에 잔뜩 펼쳐진 각종 문건들을 확인하며 빠르게 타이핑해 가는 이실장. 담배를 뽕뽕 피워대며 지켜보는 권부장.

권부장

아니, 거기 말고 여기, 그래... 베이징에서 야당 쪽 인사들도 장박사를 통해 북측과 접촉했다... 그렇지... 이걸, 조금 더 부각되게 보이고 (생각하다) 아니, 아니지... (복수의 눈빛) 흑금성이 연결해줬다고 써...

이실장

(의아해하며) 네?? 흑금성은 블랙요원이라 기술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권부장

그거야 나중에 상세하게 풀어주면 될 일 아냐.

헛기침을 하며 눈 피하는 권부장, 알아채고는 다시 타이핑하는 이실장.

‘비밀공작원 흑금성, 야당 쪽 인사 북측에 소개’

99. 남산 타워호텔 객실. 밤

심각한 얼굴로 서류를 넘겨보는 강의원.  
조금 떨어진 곳, 뒷짐을 지고 창밖을 보고 선 - 오의원.  
강의원, 보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한숨을 쉰다.  
서류 제목은 '안기부 해외 공작 보고서'  
강의원의 앞에 선- 권부장.

강의원

권부장님, 지금 이게 뭡니까?

권부장

새로 들어선 국민의 정부를 위한... 충심어린 조언입니다.

강의원

조언요? 한나라당이고 우리 당이고. 북측 인사를 몰래 만났다는게 핵심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조언입니까? 협박이지!

권부장

슬픔도 노여움도 없다면 조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의원님의 노여움에서 진한 애국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 또한 그런 의원님의 충정에 뒤쳐지지 않을...

강의원

(말 자르며) 원하는 게 뭐요. 자리 보존이요?

권부장

(비릿한 미소) 아,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강의원

(한숨) 기다리시오. 우리도 꼭대기랑 상의를 해 봐야 하니.

권부장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오해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켜만 보던 오의원, 보고서 가리키며.

오의원



여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구누굽니까.

권부장

원래는 저, 직속 실장, 그리고 vip 셋이었고. 현재 두 분 의원  
님이 추가된 것입니다.

오의원

하나 더, 여기 수십 번도 더 등장하는 흑금성, 그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 100. 베이징 공항. 저녁

대합실을 걷는 흑금성 - 이하 채서- 깔끔한 양복에 세련된 모습.  
창밖으로 보이는 고려항공의 낡은 쌍엽 비행기.  
친근한 듯 보며 싱긋 웃는 채서, 고려항공 탑승게이트로 간다.  
기다리고 선 리철.

리철

(조심스레) 남조선 정치 상황이 복잡해서 못 오실 줄 알았  
는데... 어찌 잘 오셨습니다?

채서

저도 걱정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 같습니다. 앞  
으로 더 자주 뵈는 것 같네요.

리철

그럼, 박선생이랑 둘이 술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채서

하시지요.

리철

이야, 박 선생을 보내버릴 생각하니 두근거리는구만 이거.

별 다른 말없이, 두 사람 웃으며 악수하는데... 리철이 채서의 넥타이에 꽂힌 넥타  
이핀을 본다. 순간 미소가 더 커지는 리철.

## 101. 개성공단 일대. 낮

언덕 위, 공장지대를 내려다보는 채서와 리철.  
조금 떨어진 곳,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의 정과장, 주위 경계 임무 중.  
자리를 조금씩 바뀌가며 내려다보는 채서.  
흡사 한국 지방 공장지대를 연상시키는 광경.

채서

네, 확실히 이 쪽에서 보는 게 낫네요. 광고주 말이, 광고  
효과 좋으면 핸드폰 케이스 생산 공장을 여기 개성공단으  
로 옮길 계획도 있다니깐...

리철

아니, 이게 대규모로 멋드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금강산  
하시지요.

채서

광고주가 원하는 겁니다. 휴대폰 광고 컨셉이 '서울에서 개성까  
지, 막힘없이 달린다'니깐, 남에서 북으로 전파가 쪽 달려나가  
는 모습을 찍겠다네요.

리철

거참 감각하고는...

혀를 차며 가는 리철, 웃으며 뒤따르는 채서.

## 102. 위커힐 / 의원실. 낮 + 밤

- 안가. 낮

초조한 얼굴로 전화기를 든 권부장, 역시나 초조하게 지켜보는 이실장.

권부장

대통령 각하께서는 아직도 답이 없으십니까? 강의원님, 정  
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십니다. 큰일납니다.

- 의원실. 낮

답답하단 얼굴의 강의원.

강의원

오늘까진 답을 줄 테니 한 두 시간만 더 기다려보세요.

- 안가. 낮

전화 끊은 권부장, 혼자 생각하다가,

권부장

문건, 한 부 더 남았지?

이실장

네.

권부장

문제 생기면 바로 언론사에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 의원실. 밤

전화기를 들고 있는 강의원, 놀란 얼굴.

강의원

확실한 거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사이) 알겠소.

- 안가. 밤

안가를 오락가락 앉지 못하는 권부장, 띠리링- 소리에 전화를 받는다.

강의원 (E)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권부장

어떻게 말입니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이실장이 문으로 가서 바깥 동태를 살피면,

목소리

검찰입니다. 영장 있으니 그냥 문 여시죠.

눈이 둥그래진 권부장.

권부장

... 이... 이게 무슨 짓이요! 내가 잘못되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될 텐데... 그럼 당신네들도 무사하지 못해?!

강의원 (E)

우리 쪽에 의혹이 생기더라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대통령 의지입니다.

특- 전화기를 떨어트리는 권부장, 쏟아져 들어오는 검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다. 붙잡혀가는 권부장과 이실장.

### 103. 서울 / 평양. 밤 + 아침

- 시내. 밤

서류봉투를 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한다.

- 언론사. 밤

퀵서비스 배달원이 기자1에게 서류봉투를 건넨다.  
서류봉투를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자1.

- 언론사 인쇄소. 아침

다량의 신문들이 인쇄된다.

- 아파트 복도. 아침

복도식 아파트 문 앞에 던져지는 신문, 문이 열리고 한 남자 - 남파간첩- 가 나온다.  
신문1면 헤드 기사 '안기부 해외 공작 보고서 유출 - 대북 공작원 흑금성, 북측 인사 야당 쪽에 소개'

- 아자커뮤니케이션 사무실. 아침

신물을 보다 표정이 굳어지는 창주, 기사를 유심히 읽는다.

'대북 공작원 흑금성, (주) 아자 커뮤니케이션 전무로 위장 취업'

- 아파트 내부. 아침

가위로 신문을 자르는 간첩, A4용지에 붙이고는 팩스에 꽂는다.

- 베이징, 재경위 사무실. 아침

수신되는 팩스, 확인하다 신문에 실린 채서의 사진 - 광고 계약 사진 - 을 보고는 정색하는 김명수.

- 노동당, 정과장의 방. 밤

띠리링- 벨소리에 전화기를 귀에 대는 정과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정과장

(옆에 요원에게) 동무, 지금 박채서 이 종간나 새끼 어디있네??!!

- 노동당 앞. 밤

급히 지프에 올라타는 정과장과 보위부 요원들.

#### 104. 초대소 / 채서의 숙소. 밤

채서가 면도를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리철이 들어온다.

채서 앞에 팩스 용지를 툇- 놓는 리철, 신문 기사 타이틀이 보인다.

‘안기부 해외 공작 보고서 유출 - 대북 공작원 흑금성, 북측 인사 야당 쪽에 소개’  
들어서 보던 채서, 웃으며 다시 면도를 잇는다.

채서

안기부에서 또 일이 터졌나 보네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뭘 그리 급하게...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채서의 머리에 닿는 총구.

리철

흑금성.

채서의 손이 멈춘다. 단념한 듯.

채서

...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공작명은 나도 지금 안 것이니.

리철

박 선생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우리를 속인 남조선 공작원이 주석궁에 들어가 공화국 최고 존엄을 만났다.

채서

(마음 아프다) 아무것도 달라 질 건 없습니다.

리철

달라 진 것이 없다. 그것 참 쉽구만.

채서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리처장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리철

사과할 필요 없소.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서로 조국을 위해 일한 것 아니요. 나도 사적인 감정은 없소.

채서의 머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리철, 똑바로 보는 채서.  
노려보던 리철, 눈빛이 흔들리는데...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 총구를 내린다.  
하--- 긴 한숨 내쉬는 리철, 방을 서성거린다.

리철

(허탈해하며 웃음) 남조선이라는 나라 참 멋진 나라요. 어떻게 정보국이라는 곳에서 자국의 비밀공작원을 스스로 노출 시킬 생각을 다하는지... 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구만. 그 아둔한 판단이 이토록 귀중한 기회를 날릴 걸 예상 못했단 말ियो?

하더니 썩그랑- 꽃병을 깨는 등 방을 일부러 흐트러트리는 리철.

리철

당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소. 하지만 그것도 길어야 한 시간

이오. (사이) 그 전에, 평양을 떠나시오.

채서에게 통행증을 던져주는 리철.

리철

집권자 신분을 증명한 통행증을 내밀면 붙드는 사람은 없을 것ियो. 물론... 장군님께서 박선생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만ियो. 그 또한 12시간을 넘기지 않을 거요. (사이) 눈치 채 박선생이 먼저 도주한 걸로 보고할테니... 어떻게든 국경을 넘으시오.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오.

하며 서류 가방을 건네는 리철.

채서가 열어보면, 여러가지 물건들 중 달러 뭉치와 권총이 얼핏 보인다.

채서

리처장은... 어찌 되는 것ियो?

리철

자본주의 경제를 공부하고 실전에서 활용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소. (안심시키듯) 외화 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뜻이오. 그러니... 설마 어찌 되겠소?

보던 채서, 뭐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리철, 등을 돌리며

리철

가시오.

채서

(눈물 맺힌다) 꼭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리철

불 사람이라면 언젠가 보게 되겠지.

마지막 말을 더 하려던 채서, 끝내 등을 보인 채 돌아봐주지 않는 리철의 모습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순간, 멍동- 하는 소리와 함께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안내원(V.O)

박채서 동무. 박채서 동무 안에 게십니까??

안내원의 목소리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는 채서와 리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본다.

- 객실 앞. 밤

어딘가 모르게 경직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는 안내원,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데... 보면 정과장을 비롯한 보위부 요원 3명이 무장 한 채 대기하고 있다.

- 객실 안. 밤

안내원(V.O)

박채서 동무, 박채서 동무 안에 안계십니까??

고요한 정적이 감도는 객실 안, 채서가 긴장된 얼굴로 문 쪽을 쳐다보다 리철을 바라보는데... 리철이 한 숨을 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채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다.

- 객실 앞. 밤

객실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정과장이 안내원에게 몸짓으로 신호를 보낸다. 겁에 질린 안내원이 복도 한쪽으로 비켜서자 객실 문을 향해 기관총을 겨냥하는 보위부 요원들, 정과장의 신호와 함께 팡--팡--팡-- 일제히 총알을 퍼 쏜다.

- 객실 안. 밤

얼마의 정적이 흐른 뒤 쿵- 소리와 함께 문을 차고 객실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정과장과 요원들, 총을 겨냥한 채 채서의 행방을 찾는데...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당황한 얼굴로 빠르게 주위들 둘러보는 정과장, 욕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그의 시야로 어렴풋이 채서의 어깨가 보인다. 리철에게 총을 겨냥한 채 욕실에서 나와 정과장과 요원들 쪽으로 다가오는 채서.

정과장

(이글거리는 눈) 이 중간나새끼. 죽여 버리겠어.

이성을 잃은 정과장, 기다릴 틈도 없이 방아쇠 위 손가락을 움직여 쏘려는데.

리철



장 과장. 아직은 때가 아니요. 장군님의 지시가 없지 않았소?

정과장

... 공화국의 적을 박멸하는게, 장군님이 내게 주신 임무요.

리철

지금 장군님을 모욕하려 악을 써보겠단건가? 조금만 참으시오. 장군님께 보고한 뒤에 처리해도 늦지 않소.

정과장

그럼, 죽이디만 않으면 되지 않았소? 허벅지에 한 방 정도는 상관없겠지.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정과장이 주저하자 순간, 리철을 뒤에서 붙잡고 그의 이마에 총구를 대는 채서, 리철을 인질로 조금씩 걸음을 옮겨 객실 문 쪽으로 다가간다. 총을 겨냥하고 있지만 달려들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길을 내주고 마는 정과장과 요원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순간, 팡-- 팡-- 팡-- 채서가 요원들을 향해 총을 격발하더니 리철을 객실 쪽으로 내던지곤 쏠살같이 내달린다. 뒤늦게 그를 뒤쫓는 정과장과 요원들.

## 105. 초대소 앞. 밤

초대소에서 뛰어나오는 채서, 정차된 군용 지프 두 대 앞에 멈춰 서더니 지프 한 대의 앞 타이어에 총알을 박은 뒤 재빨리 남은 지프에 올라탄다. 육지거리를 내뺄으며 달려 나오는 정과장, 겨우 시야를 확보해 총을 쏘아 대지만 이미 저만치 간 채서의 지프.

- 지프 내부. 밤

팅- 텅- 총알 맞는 소리가 울려대는 내부, 몸을 잔뜩 숙인 채 운전하는 채서가 룸미러를 보는데... 보면 잔뜩 흥분한 정과장과 보위부 요원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진다.

- 기차 내부. 밤

달리는 기차 안, 채서가 창밖을 보고 있는데 장교들이 통행증을 검사하러 온다.

자신의 차례가 오자 아무 말 없이 통행증을 보여주는 채서.  
확인하고는 놀라는 장교, 탁- 발을 짚으며 차렷 자세 경의를 표하고 물러난다.

- 부산 기차역. 밤

보안검사원들에게 사진을 들어 보이는 요원들, 채서의 얼굴.  
다른 곳, 지도를 편 요원, 그 앞에 선 정과장.

#### 요원

국경을 넘는다면, 가장 빠른 곳은 (지도 가리키며) 이곳,  
이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3월 날씨면 두만강 얼음도 거의  
다 녹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만강 상류 쪽으  
며) 수심이 얕고 폭이 좁은 이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부산역 인근. 밤

버려진 도시마냥 행한 역 주변을 등지고 달려 나가는 채서, 금방 수풀 지대에 도착  
하는데... 리철에게 받았던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낸다. 지도, 플래쉬, 나침반 등.  
후레쉬로 지도와 나침반을 번갈아 보는 채서, 손가락으로 위치를 찾는데... 보면 방  
금 전 요원이 찍었던 곳과 같은 지점이다. 물품들을 가방에 넣고 다시 이동하는 채  
서, 방향을 잡고 움직인다.

(CUT TO)

채서가 왼쪽으로 흐르는 두만강 강물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러길 얼마, 앞에서 인  
기척 소리가 들려온다. 재빠르게 몸을 숨기는 채서, 숨까지 참으면 곧 소총을 들고  
나타나는 국경수비대 다섯 명, 담배 한대를 나눠 피며 두만강 쪽으로 간다. 그러더  
니 퍼질러 앉아, 북한 소주를 까서 나눠 마시며 떠들어대는 국경수비대.  
움직이는 채서, 그들이 말할 때 한 발, 잠시 조용할 땐 멈추고.  
다시 말하면 한 발... 그렇게 신중하게, 이동한다.

- 수풀2. 밤

도보로 채서를 추격중인 보위부 요원들, 선두에 선 정과장.

#### 정과장

수비대 연락은 아직이야?!

요원

또 정전인 것 같습니다...

- 수풀3. 밤

새벽 어스름, 두만강 옆 수풀 속을 계속 이동 중인 채서.  
저기 앞에 보이는, 눈에 띄게 좁은 강폭. 목표지점.  
다가간 채서, 몸을 숨긴 채 잠시 주위를 살핀다.  
강을 내려다보게 세워진 10미터 높이의 초소.  
아무도 없다. 지켜보기를 한참. 여전히 초소엔 움직임이 없고.  
됐다 싶은 채서, 강 쪽으로 나선다.  
눈앞의 강, 폭이 30미터 가량. 딱 봐도 수심이 얕은.  
강으로 발을 내미는 채서. 그 때 뒤에서 탕- 울리는 총성.  
몸을 웅크리며 돌아보는 채서, 보면 하늘을 향해 총을 든 경비대 장교.

- 수풀2. 밤

총성의 여운이 멀리서, 잔잔히 퍼져오는 곳 멈춰 섰던 정과장과 요원들.  
서로를 본다. 그리고는, 달려 나간다.

- 수풀3. 밤

총을 겨누 채 내려오는 경비대 장교, 그리고 병사 한 명.  
딱 봐도 술을 마시다 켜는지, 아무렇게나 걸친 군복에 벌건 얼굴.

장교2

... 이 들쥐 같은 중간나, 뭐하는기래!

채서

(북한말 따라한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했소.

경비대 병사

... 혀 놀림이... 이질적입네다.

채서

통행증을 보여주겠소...

하고 손을 재킷으로 훑기면, 총구를 더 겨누는 장교2.  
멈추는 채서. 턱짓하는 장교2. 다가와 통행증을 가져가는 병사.

같이 보는 두 사람. 그러다 깜짝 놀란다.

장교2

죄... 죄송합니다... 당황스럽게도 여기서 얼쩡대시니... 저  
도 모르게 격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채서

말하지 않았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했다고.

하고는 당당히 돌아서서 강가로 간다. 저지하지 못하는 장교2.  
쫓그리고 앉아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채서, 눈은 주위를 살핀다.  
물 속, 적당한 크기의 돌맹이를 발견하는 채서, 뒤로 다가오는 장교2와 병사.

장교2

여기서 이러디 마시고. 저희가 편한 곳으로 모실테니 거기  
서 목을 축이시고...

물 속 돌맹이를 쥐는 채서, 경비대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  
바스락- 저기 뒤편 수풀에서 나는 소리.  
점점 가까워지며 소리치는 목소리들까지 들린다.  
장교2와 병사, 서로를 보더니. 소총을 겨냥한 채 다가간다.

장교2

누구더라?! 신호하라!

곧 수풀에서 튀어 나오는 일군의 사람들. 정과장과 보위부 요원들.  
탕- 탕- 그들 발 앞에 총을 쏘는 장교2와 병사.

정과장

이런 버리지 같은 것들! 저 중간나새끼 잡으라고!!!

돌아보는 경비대들, 강에 발을 내딛는 채서의 뒷모습.

정과장

일제 사격 준비!

장교2

(앞을 막으며) 총알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가면 난리날 수 있  
습니다. 예전 그 중화민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때문인지 부하들도 총 들기를 주저하자 허탈하게 웃는 정과장.

#### 정과장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당성을 잃어버렸어.

하고는 막아선 장교2의 허벅지에 탕- 총알을 박는 정과장, 꼬꾸라지는 장교2.  
정과장, 그대로 채서를 향해 총을 겨냥한다.

#### 정과장

그래서는, 아니 돼지.

탕- 바로 총을 쏘버리는 정과장. 채서 바로 옆으로 박히는 총알.  
돌아볼 틈도 없어, 이를 악물고 전진하는 채서.  
강으로 오며 연신 방아쇠를 당겨대는 정과장.  
하지만 이동 중에, 또 분노로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정과장.  
강 바로 앞까지 온 정과장, 다시 탕- 채서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는 총알.  
순식간에 강으로 번지는 새빨간 피.  
정과장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인다. 하지만 턱- 총알이 떨어지고.  
정과장, 아무 주저 없이 그대로 강으로 들어선다.  
엄청난 속도로 채서를 쫓는 정과장.  
반대편 강까지 10여 미터 남은 지점, 거의 목까지 차오른 강물.  
그리고 채서의 바로 뒤로 따라 붙은 정과장, 팔을 들어 올린다.  
채서의 뒤통수를 갈기는 정과장의 권총.  
채서, 휘청하지만. 물살에 정과장 자신도 몸이 휘청댄다.  
그 와중에 채서를 붙들어내는 정과장.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채서를 잡고 늘어진다.

#### 정과장

중간나 새끼 죽여버리겠어!

채서, 정과장을 뿌리치려 하지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목까지 찬 물 속에서 드잡이를 벌이는 두 사람.  
극도로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서로 엉키고 휘청대고 난리도 아닌데.  
그러다 채서, 팔을 휘두르다 팔꿈치로 정과장 턱을 가격한다.  
컱- 하고 크게 요동치는 정과장의 몸.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넘어지며 물살에 휩쓸린다.  
반사적으로 손을 내미는 채서.

그럴 틈도 없이 정과장을 붙잡아 달려가는 물살.  
채서, 그렇게 정신을 잃은 채 떠내려가는 정과장을 보는 것도 잠시.  
다시 발을 옮기면- 곧 수위가 알아지더니...  
땅을 밟는 채서. 너무 지쳐 미친 듯 숨을 토해내며 쓰러지려는가 싶더니.  
몸을 일으켜, 기듯이 혹은 건듯이 바로 앞 수풀로 몸을 옮긴다.  
채서, 마지막 힘을 짜내 다리에 속도를 붙여, 온 힘을 다해 달려 나간다. 슬픈 얼굴로.

#### 채서(V.O)

그 날 이후 리철을 비롯한 김명수 정과장 일행을 베이징에  
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106. 베이징 / 북한. 밤

- 베이징. 밤

채서와 리철 일행들이 머물렀던 베이징 캠퍼스키 호텔 근처 야경, 어느 때와 다름  
없이 아름답지만 웬지 모르게 쓸쓸하다.

- 캠퍼스키 호텔 객실. 밤

다이어리에 일기를 쓰고 있는 채서.

#### 채서(V.O)

나는 왜 공작원이 되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몸  
에 아무 감각이 없다.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북한 정치범수용소. 밤

나무기둥에 묶인 채 벌벌 떨고 있는 김명수와 정과장, 맞은편에 선 인민군.  
탕-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고개를 떨구고 만다.

- 리철의 집. 밤

리철이 홀로 멍하게 거실에 앉아있다 손목에 찬 롤렉스 시계를 본다.  
덜컥-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리철의 집으로 들어오는 보위부 요원들.

#### 장교

리철 동무. 당의 호출입니다.

체념한 듯 롤렉스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리철, 요원들을 따라 집을 나가면 화면 천천히 페이드 아웃.

#### 107. 비행기 기내. 낮

좌석에 앉아 다이어리를 보고 있는 채서, 비행기가 착륙하는지 몸이 앞으로 쏠렸다. 곧, 쿵- 하는 충격음과 함께 땅에 닿는 기체,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 동요하는 사람들. 그러다 곧, 안정되며 속도를 줄이는 비행기. 문득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는 채서, 조금 떨어진 앞좌석에서 자신을 보며 웃는 이효리, 놀랐다는 표정. 괜찮다는 듯 끄덕여주는 채서.

#### 108. 상하이 / 촬영장. 낮

촬영 스탭들로 버글대는 넓은 스튜디오, 초대형 남북지도가 한쪽 벽면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준비하는 창주.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한국 측 인사들... 채서, 김기자, 이효리.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 다들 서로 알아보며 악수를 나눈다.

잠시 후, 반대편 철문이 활짝 열리고 또 다른 무리가 들어선다.  
검은 양복의 보위부 요원들, 신속히 달려와 문 주위로 쭉- 늘어서 경계한다.  
들어서는 단아한 얼굴의 북한 여자, 조명애. 그리고 북한 스탭들.  
담담히 그들을 지켜보는 채서, 애써 리철을 찾아보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효리, 조명애를 필두로 남북 스탭들이 번갈아 가며 인사하고 악수를 나눈다.  
곧 이효리와 조명애가 악수를 나누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남북측.

이효리

반갑습니다.

조명애

반갑습니다.

그때, 채서의 시선에만 선그라스를 낀 채 철문에서 당당히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

습이 포착되는데...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리철이다. 그의 생사를 확인하곤 너무나도 반가운 채서, 하지만 쉽게 리철에게 다가가지 못하는데... 리철 역시 보위부 요원들과 인사를 나누다 채서를 발견하지만 어찌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다. 저만치 멀리 있는 채서를 숙 한 번 쳐다보더니 보란 듯이 숙 손목을 들어 올리는 리철, 보면 채서가 선물한 롤렉스 시계를 아직 차고 있는데... 그걸 본 채서, 역시 보란 듯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진다. 넥타이 아래 쪽, 카라에 덮여 보이지 않던 붉은 빛 넥타이 핀 - 예전 리철이 선물했던 - 을 위로 조금 끌어올리는 채서, 그걸 보고는 씨익- 짧게 웃는 리철.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

끝.